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소식

제호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 발행일 : 2006년 9월 | 발행인 : 강순범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55-5번지 102호 (135-010)  
 TEL : (02) 512-5915 | FAX : (02) 512-5421 | www.ksgoc.or.kr | E-mail : gynecancer@gynecancer.or.kr



▲ 제21차 학술대회 기념사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열하는 태양과 불벌더위로 전국이 뜨거웠던 여름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 가을이 문턱에 와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바쁘게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항상 본 학회에 열과 성의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병원에 희망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를 만들겠다는 힘찬 포부와 함께 회장직을 맡은 이후 다방면으로 우리 학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년이 채 되지 않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뤄놓은 성과들을 돌이켜 볼 때 제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간에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일들 중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해결되어야 할 여러 현안들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추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2006년도 두 번째 소식지의 발간을 맞아 즈음하여 그간 우리 학회와 회원 여러분께서 이루어 온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 결실을 거두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6월 23일에는 HPV 진단워크숍을 개최하여 HPV의 진단에 있어서의 현재까지의 발전과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 및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보건당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7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주관하고 안명옥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린 '여성 건강권 수호 대토론회'가 국회의원, 전문의료인, 여성단체 관계자, 정부 관계자 및 일반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학회에서의 주제 발표에 대한 학계,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및 질병관리본부 여러분들의 지명토론 시간을 마련하여 각자의 시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

다. 의료계에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 수진율 증가를 위한 홍보와 HPV 검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에 대한 제안과 함께, 정부 및 여성단체에서의 '여성의 관점에서 검진의 접근성 확대',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조기 성교육의 필요성' 등 여성 건강권 수호를 위해 자궁경부암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고, 자궁경부암 및 여성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회가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토론회에 앞서 31명의 국회의원들이 '여성 건강권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이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행사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8일에는 부인암 진료권고안 개발을 위한 합의 도출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홉 차례 이상의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를 거쳐 논의되고 정리된 사항을 중심으로 표준적인 진료지침을 도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인고형암치료임상연구센터와 대한부인종양학회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 회의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 학회에서는 학회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명예회장님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예회장 기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및 난소암에서의 진료권고안 개발을 위한 강의 및 토론, 그리고 부인종양과 관련된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영상의학, 그리고 부인과 병리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어서 포괄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는 다른 의학분야에서도 쉽게 얻어내지 못할 만큼 중요하지만 어려운 사항으로, 이 자리를 통해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표준 진료권고안 작성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11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제12차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심포지엄과 제5차 한일부인종양공동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한일부인종양공동회의에서는 올해 초부터 관심을 받아온 난소암에서의 복강 내 항암치료와 로봇수술에 대한 내용 등 최신 치료법에 대한 연재발표와 함께, KGOG에서의 임상시험 경험을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일부인종양분야의 지속적인 학술 연계와 친선을 보다 공고히 하고, 발전단계에 있는 부인종양 연구를 주마가편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선생님들의 참석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회장직을 맡은 이후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바로 우리 학회의 지속적인 연구와 지식의 향상을 통한 학문적 성취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본 학회의 학술 경연의 장이라 할 수 있는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해 4월의 제 21차 학술대회에서는 이전 보다 한층 진전된 내용으로 참여한 회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인종양학 발전의 초석이 되는 기초 연구분야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대한부인종양연구회(KGOG)의 출범으로 부인종양학 분야에서도 활기를 띠고 있는 암 관련 임상시험의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해외의 저명한 연자 초빙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수준 높은 학술 교류의 장을 만든 결과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역점을 둔 것은 우리 학회 학술지의 질적 개선입니다. 우리 학회의 규모가 확대되고 내실을 기해가고 있는 지금, 학회의 학문적 성과를 기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역시 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학회 산하 편집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논문 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회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논문게재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던 학회지 논문접수 및 심사 시스템을 online화하는 등의 외형적 변화의 시도는 궁극적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학술활동의 질적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었습니다. 학회지에 대한 자체적인 반성과 건설적인 토론은 우리 학회지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식 학술지인 '부인종양'이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당한 등재 학술지가 되고 더 나아가 SCI 등재 학술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논문의 중복출판/이중게재가 본 학회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문적 업적을 증가시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학자로서의 윤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보다 거시적인 안목과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이러한 윤리를 지킬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학술적 성과를 전함에 있어 그간의 KGOG의 활동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KGOG는 현재 국내 각 병원에서 활동적으로 진료와 연구에 임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모여 매달 임상시험에 대해 의논하고 새로운 다기관 임상시험 프로토콜 개발과 진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술대회에서도 발표되었듯이, KGOG는 적극적인 다기관 공동 임상시험을 통해 지금까지 단일기관 연구에 그쳤던 국내 부인종양 임상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이러한 연구

성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부인종양 분야의 선도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KGOG의 활동은 국내 임상시험에만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임상시험에의 참여를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KGOG는 미국 GOG의 준회원으로서, GOG meeting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발한 교류를 전개하여 현재 GOG에서 수행 중인 protocol 중 우리 현실에 맞는 일부의 임상 연구를 선정하여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구체적인 시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EORTC에서 시행하는 자궁경부암 임상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낸 바 있고, 국내 각 기관의 상황파악 및 임상연구 실시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현재 본 학회의 연구 수준이 이미 국내만이 아닌 국제적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초 위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생산적이며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연구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회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여러 회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여러 선생님들의 관심과 도움이 더욱 절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의료를 둘러싼 여러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은 현 시점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면 학회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암보장성 강화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정책도 이의 시행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부인암 분야에서의 상대적으로 미흡한 정책 사안에 대하여 여러 회원님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수렴을 통한 단합된 모습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인암 수술 수가의 적정성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우수한 인재를 산부인과 의사의 일원으로 모집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시급한 당면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세계는 공간과 시간의 벽을 넘어 어떠한 일이든 어디에서나 파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각 회원들의 요구를 취합하고 각 교실의 동향 등 일상적인 정보교류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곧 학회의 발전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여러 회원님들의 학문적, 임상적 발전을 보다 빠르고 심도 깊게 선도할 수 있는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모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원님들이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에서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회장 강순범

# contents

2006년 9월(통권 제10호)

- 1** 인사말
- 4** 제21차 학술대회 참석기
- 5** 학회 학술지 발전 세미나 참가기
- 6** 제2차 대한부인종양연구회(KGOG) 워크숍 참석기
- 8** 제21차 학술대회 수상자 명단
- 9** '부인종양' 학회지에 논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저자 명단
- 10** 논문 이중게재에 대한 학회 입장 공지 심사위원 심사자침
- 11** ASCCP 학회 참석기
- 13** 37차 SGO 참석기
- 15** 97차 AACR 참석기
- 17** EUROGIN 학회 참가 후기
- 18** 2006 ASCO 참석기
- 20** 여성 건강권 수호를 위한 대토론회 II
- 21** 자궁경부암 HPV 진단 워크숍
- 22** 73차 GOG 업무회의 참석기
- 23** EORTC-GCG 회의 참가기
- 26** 제12차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심포지엄
- 27** 5th Korea-Japan Gynecologic Cancer Joint Meeting
- 28** 해부학 실습에 대한 오래된 기억
- 29** 학회 회무보고·회원동정
- 42** 2007년 주요학회 일정·편집후기
- 43**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조직도

## 제21차 학술대회 참석기



가톨릭의대 류기성

항사로 흐르던 하늘도 비행기도 못 뜨게 막았던 돌풍도 잠잠해지고 온누리에 흐드러지게 만발한 꽃들로 화창한 1,000년 고도 경주에서 부인종양 21차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인종양 분야의 최신 진료기법, 논쟁 (controversy) 분야와 이 분야의 전문가의 견해를 듣는 알찬 내용 때문에 봄의 유혹을 뒤로한 채 아침 일찍 학회장에 들어섰습니다.

350여 회원이 등록하고 많은 관련 제약 및 의료기기 전시업체가 들어선 학회장은 전문학술대회로서 그 어느 학회보다 활기차고 열띤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학문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학술대상으로 가톨릭 의과대학의 박종섭 교수 "Autophagosis"에 관련된 연구발표를 시작으로 6분의 저명한 외국의 석학의 초청, 총 25편의 일반연제 구연 및 82여 편의 포스터 발표와 국내외 초청 연자들의 발표는 내용이 충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참여와 호응 또한 매우 좋았습니다.

한국계 2세인 Dennis S. Chi의 난소암 분야의 최소 침습 수술은 훌륭한 임상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시도였고, 이어진 재발 난소암의 2차 종양감축술은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던 우리들에게 명확한 치료지침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초청된 Ignace Vergote는 자궁내막암의 림프절제술의 명확한 지침과 임상적 효과를

제시하고, 자궁경부암의 선행화학요법의 효과를 광범위한 자료 수집 후 정리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저용량 단기요법은 우리나라의 연구를 인용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연구도 국제적임에 자부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최근 3상 연구가 마무리되고 곧 임상에 도입될 HPV 예방 백신을 소개하는 "Luncheon Seminar"는 특히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오후 2개의 방에서 이어진 구연(Free communication) 발표는 짧은 발표 시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연구들을 조리 있게 잘 정리하여 발표하였으며 상호 토론도 활발 하였습니다. 또한 학회장 옆의 Pine room에서 전시된 포스터는 촉박한 학회의 진행으로 둘러볼 시간이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한일 산부인과 학술대회처럼 짧지만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학회지의 SCI 등재를 목표로 열린 "부인종양 콜포스코피학회 학술지 발전 세미나"는 진단방사선과의 "Korean Journal of Radiology"의 SCI 등재의 주역이신 한양의대 함창국 교수님과 의협협 평가위원장이신 서울의대 홍성태 교수님의 강의로 매우 충실한 세미나였으나 구연과 같은 시간대에 3개의 방에서 진행되었기에 참석 인원이 적었음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중국의 잠재적 성장의 가

능성을 감안하고 아시아의 주역으로 본 학회가 자리잡기 위한 다소 전략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강연 내용이 미흡하였으며, 연자들이 일정한 수준에 맞추려고 억지로 포장한 감이 있었습니다. 중국 등 아시아에서 주역으로 자리잡기 위한 의도라면 있는 그대로 현실을 파악하고 상호 발전을 논의 함이 바람직하지만 다소 가식적이고 형식에 치우친 느낌이라 아쉬웠습니다.

학회 만찬은 일본산부인과 학술대회 참여와 회원들의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 인원은 다소 적었으나 우리나라 역사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1,000년 전의 신라의 역사 퀴즈 문제, 매끄러운 진행으로 즐거운 만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KGOG의 활발하고 의욕 찬 연구 활동, 학회지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 건강보험 적정화 등의 다양한 학회의 활동이 어우러진 짧지만 학문적으로도 훌륭한 학술대회였으며 회원들의 참여 또한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알차고 훌륭한 학술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쓰신 회장님 이하 집행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6년 11월 17~18일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열리는 가을 심포지엄에서 뵈기를 바라며 참석 후기를 마칩니다.



# 학회 학술지 발전 세미나 참관기



고려의대 이낙우

2006년 4월 21일 경주에서 열린 21차 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본 학회의 학술지인 “부인종양”에 대한 개선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학술지 발전 세미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현재 학회 공식학술지인 “부인종양”은 학술진흥재단(학진) 등재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고 향후 2년간 발행되는 학회지를 대상으로 평가과정을 거쳐 등재지로의 승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학회의 학문적 성과를 가능하는 것대라 할 수 있는 학술지에 대한 반성과 토론을 통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발돋움하고 SCI 등재지로 나아가기 위한 금번 세미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 아니할 수 없다.

첫 시간에는 학회 사무총장인 서울의대 김재원 선생님이 학회지 현황 및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조건에 대해 발표하였다. 본 학회지의 역사, 구성, 투고현황 및 게재논문 분석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학진 등재후보지의 체계 및 내용평가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것들은 학술지의 정시발행 여부, 논문게재율, 편집위원 연구실적 및 평균 재임기간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 편집위원/심사위원 선정 기준, 심사기준/절차 마련과 제출논문 부족을 해결하고 논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술대상 지원자, 우수논문 수상자의 논문게출 의무화, 전공의 제1저자 논문대상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회원들의 학회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느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 간사인 울산의대 김종혁 선생님의 학회지 논문심사 현황 및 전자투고 시스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본 학회지는 2005년 10월 5일부터 online 논문접수/심사 시스템이 가동되어 시행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투고 시스템을 실제 online 화면을 예시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약간의 개선점이 있지만 타 학회지에 비교하여도 체계나 내용면에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향후 좀더, 보완 발전시킨다면 매우 우수한 전자투고 시스템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세 번째 시간에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 협의회 평가위원장인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 홍성태 선생님이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상호심의(peer review)의 개념에 대한 명쾌한 설명에 있었고 학회지 발전에 심사자와 편집위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상호심의를 통한 학술지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논문이 투고되어야 하고 많이 인용될 논문을 게재하며 학술적인 냉정한 평가, 편집권의 정립, 중복출판, 표절, 논문 쪼개기 등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마지막 시간에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 협의회 정보관리위원인 한양의대 진단방사선과학교실 함창곡 선생님이 2001년 SCI search와 Index Medicus 등재지가 된 “Korean Journal of Radiology”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술지의 Medline 및 SCI 진입을 위한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등재지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과 노력, 그들

이 요구하는 등재요건과 등재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등재전략으로 내부스타일에서 최소한의 흠도 없어야 하며 내용에 포함된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만들어 완벽한 잡지를 추구하고 품위있는 디자인, 흥미있는 주제의 논문, SCI 잡지에 인용확대, 편집인과 편집위원의 포장, 배포처의 국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아직 학술진흥재단 등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SCI 진입을 논하기 좀 이른 느낌도 들지만 목표를 설정하고 학회 임원진과 회원들이 꾸준히 노력한다면 실현이 그리 멀지만도 않다고 생각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술진흥재단 등재를 위해서는 출간의 정시성이 평가항목 중 가장 배점이 크기 때문에 좋은 논문이 제때에 많이 투고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투고논문수가 증가하면 논문게재율 부문의 점수도 더불어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편집위원회 운영의 개선, 심사위원/편집위원 선정기준과 심사기준/절차의 마련, online 논문접수 및 심사시스템의 보완 발전 등을 통해 회원 모두의 숙원사업인 학회지의 학진 등재, 나아가서 Medline, SCI 등재학술지로의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처음 마련된 뜻깊은 자리에 일반연제와 동시에 진행된 관계로 많은 회원이 참석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 제2차 대한부인종양연구회(KGOG) 워크숍 참석기



동아대의 차문석

2006년 4월 20일에 경주 힐튼호텔에서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 피학회의 첫날에 제 2차 대한부인종양연구회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먼저 가톨릭의대 허수영 교수가 난소암 환자에서의 NCI announcement로 나온 복강 내 항암화학요법을 소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 내용은 난소암 환자에서 종양감축술이 성공적인 환자에서 복강 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할 것을 추천하게 되었으나, 이는 대기관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 1996년 Alberts 등의 보고(GOG 104/SWOG 8501)와 2001년 Markman 등의 보고(GOG114/SWOG 9227)에 이어 2006년도 Amstrong 등(GOG 172)이 난소암 3기를 대상으로 시행한 복강 내 항암화학요법 보고로 NCI announcement가 나오게 되었다.

존스홉킨스 병원의 Amstrong은 본 필자가 2003년도 존스홉킨스 병원 연수 중 존스홉킨스의 Kelly 부인암 진료부에 소속된 내과 여교수로 부인암 전공이고 재발된 난소암 환자에서 위장관계와 비뇨기계 수술을 망라한 2차 종양감축술을 멋지게 수행하던 47세로 고인이 된 전임 부인암 분과장이었던 Montz 교수 및 새롭게 분과장을 맡은 Bristow 교수와 잘 협조하면서 난소암 환자 연구에 매진하는 아름다운 얼굴과 다소 뚱뚱한 체구(?)의 교수로 기억하고 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복강 내 항암화학요법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이 많은데 우선 복강 내 항암화학요법이 임상시험으로 진행된 관계로 경험이 부족하고, 표준화된 방법이 없고, 잔류종양이 없는 모든 환자에서 투여가 필요한지, cisplatin 용량은 100mg/m<sup>2</sup>가 적절한지, paclitaxel의 사용은 필수적인지, cisplatin을 carboplatin으로 대치가 가능한지, 최상의 catheter의 종류와 삽입 시기는 첫 수술 시가 좋은지, 아님 회복 후가 좋은지, 특히 장 절제 환자의 경우는 어느 시기가 좋은지 등이며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위해 좀 더 많은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1차 때의 연구회 회원과 세부운영위원 중심으로 참여한 가운데 조출하게 시작되었으나, 그동안 매월 강순범 회장님의 열성과 세부운영위원회 회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매달 새로운 프로토콜 개발에 힘써온 결실로 그동안 진행해온 자궁경부암 환자의 수술 후 림프선, 자궁방 조직 침범 등의 고위험군에서 paclitaxel과 carboplatin

을 이용한 동시항암방사선요법 프로토콜인 KGOG 1001은 이미 환자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종료되어 추적관찰과 생존율 분석 단계로 첫 시행한 이 프로토콜의 진행 시 경험과 어려움 등에 대해 서울의대 이택상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자궁암(KGOG 1002-1007), 자궁내막암(KGOG 2001), 난소암(KGOG 3001-3007) 각 부분에 대한 준비한 임상시험 프로토콜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는 대한부인종양학회도 국내의 부인암 환자를 대상으로 공동연구를 시작하여 SCI급 논문에 게재를 목표로 함과 아울러 본격적인 우리나라 데이터의 축적과 KGOG의 원-원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미국의 GOG 프로토콜 218, 219에 공동 참여의 준비 단계이며, 유럽의 EORTC 공동연구에도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일본 산부인과 학회와의 공동 학술대회도 활발히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전남의대 김석모 교수가 난소암 환자 치료반응 평가 시 GCIG (Gynecologic Cancer Inter Group)의 CA 125 response definition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영상감사에서 종양크기를 예측 시 사용되던 WHO기준과 최근 좀더 객관적인 영상기준인 RECIST (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s) 기준이 있지만 영상진단으로 어려운 경우 유용한 반응 판단 기준이다. CA 125가 치료 전에 비해 최소 50% 감소되고, 이러한 종양표지인자가 28일 유지되어야 하고, 단 CA 125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는 치료 전 상한치의 2배는 상승되어야 하고 치료시작 전 2주내 검사되어야 한다. 치료 시는 CA125를 2-4주 간격의 측정이 필요하고, 추적관찰 시는 2-3개월 간격으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등등의 내용이다. 다음으로 계명대의 조치흠 교수가 GOG에서 시행하고 있는 translational research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었다.

참고로 지난 2005년 8월 20일 제 1차 대한부인종양연구회 워크숍이 서울 리즈 칼튼호텔 3층 칼라시아룸에서 열렸었는데 강순범 회장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상시험과 IRB에 대해 서울대 김옥주 교수가 발표했고, 김재원 교수가 미국 GOG의 조직과 연구자금, 멤버십, 프로토콜 개발 등을 소개하였고,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분과별로 새 임상시험 및 국제 공동 임상시험 제안을 위한 분과별 토의가 진행되었다. 그 외 국내의 신약개발 동향, 성균관대



흉부외과 김진국 교수가 translational research in cancer medicine에 대해 발표하면서 tissue banking의 과정과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끝으로 지식이 미약한 필자를 지도하고 이끌어 주고 계신 강순범

회장님과 세부운영위원님들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드리고, 임상연구 진행에 도움을 주고 있는 연구 간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부인종양학회의 여러 구성원들께서 걸음마 단계인 우리 대한부인종양연구회의 임상시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해 본다.

## 대한부인종양 · 콜포스코피학회 제12차 심포지엄 및 제5차 한일부인종양합동회의의 개최 안내

대한부인종양 · 콜포스코피학회는

제12차 심포지엄 및 제5차 한일부인종양합동회의를

11월 17일, 18일 양일에 걸쳐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등록은 학회 홈페이지 ([www.gynecancer.or.kr](http://www.gynecancer.or.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1차 학술대회 수상자 명단

학술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21차 학술대회 학술대상,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수상자 명단입니다.

### \* 학술대상 \*

수상자: 가톨릭대학교병원 박종섭 교수  
논문명: The Mechanism of Apoptotic and Non-apoptotic Programmed Cell Death (Autophagy) in Etoposide-treated Cervical Carcinoma Cells

### \* 학술상 \*

수상자: 경북대학교병원 이윤순 교수  
논문명: Genetic Alteration of  $p16^{INK4A}$  Promoter Region in Endometrial Carcinoma

### \* 우수 논문상(구연) \*

수상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이철민  
논문명: The Efficacy of Ovarian Cancer Screening by Serum Proteomic Analysis Using SELDI-ToF-MS

### \* 우수 논문상(포스터) \*

수상자: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이정원  
논문명: Promoter Hypermethylation and Loss of Heterozygosity of VHL, RAR- $\beta$ , RASSF1A, and FHIT Tumor Suppressor Genes on Chromosome 3p in Uterine Cervical Squamous Cell Carcinoma

수상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조한별  
논문명: Blood Gene Expression Profiling of Ovarian Cancer

수상자: 국립암센터 자궁암센터 박정열  
논문명: Risk Factors for Persistence or Recurrence of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after Conization of Cervix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상, 학술상, 우수논문상 규정

제정 2005년 4월 11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상,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이하 학술대상,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이라고 칭한다)의 시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본 상의 시상 대상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회원으로서, 부인종양학 분야에서의 연구업적과 우수한 논문 등에서 큰 공이 인정된 자로 한다.

**제3조 (시상부문 및 자격):**

- 1) 시상부문은 학술대상 1명, 학술상 1명, 우수논문상은 구연 발표 1명, 포스터 발표 3명으로 한다.
- 2) 학술대상의 수상자격은 미계재 논문을 본 학회 공식 학술지(이하 '부인종양')에 게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모에 응함으로서 부여된다.
- 3) 학술상의 수상자격은 부인종양에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부여된다. 해당 논문은 '부인종양' 게재 논문을 1편 이상 참고문헌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4) 학술대상 및 학술상은 교신저자를 수상 대상으로 한다.
- 5) 우수논문상의 수상자격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 (제1저자) 발표함으로써 부여된다. 초록 접수할 때 우수논문상 지원 여부를 밝히도록 한다.
- 6) 각 상은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에 한하며 중설, 증례는 제외한다.
- 7) 각 상의 수상자는 동일 논문으로 반복 수상할 수 없으며 최근 3년간 같은 종류의 상을 수상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제4조 (시상내역 등):**

- 1) 학술대상의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하며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부여한다.
- 2) 학술상의 수상자에게는 2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 3) 우수논문상의 수상자에게는 구연 발표자 100만원, 포스터 발표자 각 5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제5조 (심사):**

- 1) 심사는 학술위원회가 담당한다.
- 2) 학술대상은 접수된 논문 가운데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한다.
- 3) 학술상은 지난 1년간 '부인종양'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한다.
- 4) 우수논문상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구연 및 포스터 발표되는 연재 가운데 가장 우수한 연재를 선정한다.

**제6조 (시상):** 본 상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발표 및 시상한다.

**제7조 (학술대상 및 우수논문상 지원자/수상자의 의무):**

- 1) 학술대상 지원자 및 수상자는 지원 논문을 1년 이내에 '부인종양'에 접수하여야 한다.
- 2) 우수논문상 수상자는 지원 논문을 1년 이내에 '부인종양'에 접수하여야 한다.
- 3) 발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학회 초록 발표 기회를 3년간 제한한다.

**제8조 (부칙):**

- 1) 본 규정에 규정하기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2)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 3) 3조 3항의 적용은 본 규정이 통과된 이후에 '부인종양'에 접수된 논문에 한한다.

# ‘부인종양’ 학회지에 논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저자 명단

교신저자	교신저자 소속	제 목	지 원	지원학술대회	마감일
강석범	국립암센터	RASSF1A Hypermethylation and Its Inverse Correlation with BRAF and/or KRAS Mutation in MSI-associated Endometrial Cancer	학술대상	21차 학술대회	2007년 4월
김문홍	원자력의학원 산부인과	초기 자궁경부암 근치적자궁적출술 후 고위험 환자군에서 3주 간격 시스플라틴(cisplatin)을 사용한 보조적 동시항암화학 방사선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	학술대상	20차 학술대회	2006년 11월
김병기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Microarray Prediction of Lymph Node Metastasis in Patients with Cervical Squamous Cell Carcinoma	학술대상	21차 학술대회	2007년 4월
박정열	국립암센터 자궁암센터	Risk Factors for Persistence or Recurrence of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after Conization of Cervix	우수논문상 (수상)	21차 학술대회	2007년 4월
배덕수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Increased Toll-like Receptor 9 Expression in Cervical Neoplasia	학술대상	21차 학술대회	2007년 4월
배석년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Antiproliferative and Apoptotic Effects of Zinc-Citrate Compound (CIZAR®) on Human Epithelial Ovarian Cancer Cell Line, OVCAR-3	학술대상	21차 학술대회	2007년 4월
안웅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Multiplexed Liquid Assay System Profiling for Early Detection of Ovarian Cancer	학술대상	20차 학술대회	2006년 11월
안웅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The Combination of Oligodeoxynucleotide and Therapeutic Vaccines Induced by Photodynamic Therapy Enhances Antitumor Immune Response	학술대상	20차 학술대회	2006년 11월
안웅식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Identification of Differential Expression of Genes in Cervical Carcinogenesis by Whole Genome CGH Array	학술대상	20차 학술대회	2006년 11월
안웅식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Luminex System Application for Early Detection and Recurrent Ovarian Cancer	학술대상	21차 학술대회	2007년 4월
유희석	아주대학교병원	Syndecan-1 and Its Functions in the Human Endometrial Cancer	학술대상	21차 학술대회	2007년 4월
이규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Protein Expression Patterns of Cervical Cancers Characterized by Proteomic Analysis	학술대상	20차 학술대회	2006년 11월
이근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Ras Association Domain Family 1A (RASSF1A) Ala133Ser Polymorphism is Associated with Cervical Cancer in Korean Women	우수논문상 (수상)	20차 학술대회	2006년 11월
이기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Dose Lymphovascular Space Invasion (LVSI) Correlates Significantly with the Risk of Nodal Metastasis in Women with Early Stage Cervical Cancer?: LVSI in Stage IA Cervical Cancer	학술대상	21차 학술대회	2007년 4월
이기현	성균관의대 제일병원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Preoperative Abnormal PAP Smears in Endometrial Carcinoma	학술대상	21차 학술대회	2007년 4월
이선경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Role of 5' -CpG Island Hypermethylation of FHIT Gene in Korean Cervical Carcinomas	학술대상	20차 학술대회	2006년 11월
이윤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Laparoscopic Transperitoneal Infraarenal Paraaortic Lymphadenectomy in Patients with Gynecologic Malignancies	학술대상	20차 학술대회	2006년 11월
이정원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Promoter Hypermethylation and Loss of Heterozygosity of VHL, RAR-β, RASSF1A, and FHIT Tumor Suppressor Genes on Chromosome 3p in Uterine Cervical Squamous Cell Carcinoma"	우수논문상 (수상)	21차 학술대회	2007년 4월
이준모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The Immunomodulatory Effect of "Mistletoe (ABNOBavisum)" in the Treatment of Ovarian Malignancy	학술대상	21차 학술대회	2007년 4월
이준모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Antiproliferative Effects of Müllerian Inhibiting Substance on Human Ovarian Cancer Cell Lines	학술대상	21차 학술대회	2007년 4월
임채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자궁경부암 환자의 전초림프절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출	학술대상	21차 학술대회	2007년 4월
조한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Blood Gene Expression Profiling of Ovarian Cancer	우수논문생수상	21차 학술대회	2007년 4월
최중섭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경북삼성병원	LARVH with LPL/LPAL for Stage IB2 Cervical Cancer	학술대상	21차 학술대회	2007년 4월

## 논문 이중게재에 대한 학회 입장 공지

최근 논문의 중복출판/이중게재가 본 학회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본 학회지에 먼저 게재하였던 논문(영문 혹은 국문)을 이후에 외국 SCI 잡지에 게재하는 경우와, 둘째는 외국 SCI 잡지에 게재하였던 논문을 번역해 본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먼저 출판된 본 학회 학술지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국내 의학계의 신뢰를 위축시킬 수 있는 학문 윤리 위반행위로,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외국 SCI 학술지에 통보하여 '논문을 철회'하도록 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에게는 본 학회지에 일정기간 논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며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연계하여 모학회의 학회지에도 같은 벌칙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논문 접수 시 또는 심사 시 PubMed search를 통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중게재를 시도한 경우도 간주하고 학회 명의로 교신저자에게 경고 서한을 발송

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나 다른 독자를 대상으로 다시 출판하기 원하는 저자는 이미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와 앞으로 게재될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에게 동의를 구해 '이차출판' 형식으로 논문을 게재해야 하는데 본 학회지의 투고규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이미 공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논문을 한국 내에서만 돌려보던 과거와 달리 1997년부터 코리아메드 (KoreaMed)라는 국내 의학 학술지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내 논문의 영문 초록을 전 세계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이중게재 사례가 과거보다 쉽게 발견되고 있는 점을 회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는 2006년 9월호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학회에서는 '부인종양' 학회지와 관련된 기존의 이중게재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례가 취합되는 대로 회원 여러분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 심사위원 심사지침

'부인종양'은 편집과정에서 상호심사 제도(peer-review syste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상호심사 위원으로 선생님을 추천하여, 이 원고 심사를 의뢰합니다. 부인종양학회 및 관련 학회의 해당 분야 전문가가 심사해서 원고를 선정하며, 내용을 다듬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장차 Index Medicus (PubMed)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게재 여부를 판단하실 때 이러한 목표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에 주목하실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하게 철자 교정을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우선은 다음 사항이 심사자가 해야 할 일임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연구의 주제와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는가?  
기존의 연구 결과를 잘 요약하였는지, 참고문헌은 적절하고 정확하게 인용하였는지를 검토합니다.
- 2) 연구 내용이 중요하고 독자에게 흥미로운 것인가?  
제기된 주제가 중요하다면 연구 결과가 positive가 아니라도 게재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 3) 독창적인 연구인가?  
독창적인 연구는 새로운 자료, 생각, 방법의 보고, 기존 자료의 재해석을 포함합니다. 제기된 논문의 주제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 출간에 충분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지 검토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연구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저자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연구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우선 제기된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에 연구 고안이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연구대상은 적절하게 모집되었는지, 대조군은 적절한지, 연구방법은 잘 기술되었는지, 결과분석은 적절한지를 검토합니다.
- 5) 결론은 연구 수행에서 얻은 자료로 잘 설명되는가?  
연구결과를 과장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으니 이런 경우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연구 내용을 잘 제시하였는지?

본문과 표, 그림이 잘 구성되었는지, 문장이 분명하고 상호 연관성있게 기술되었는지를 보고 서로 모순되는 내용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중요한 철자 잘못을 지적합니다.

### 7)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기관 IRB 검토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informed consent를 얻었는지, 기타 윤리적인 잘못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 8) 중대한 잘못은 없는지?

논문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논문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 9) 해당 논문을 출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사자의 의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정하실 때에는 첫 번째 심사 때 수정이 필요한 것은 모두 지적하시고, 2차 심사, 3차 심사에서는 계속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심사의견서는 가급적 별지에 따로 기록하여 주시고 원고내용, 통계처리, 참고문헌, 사진, 영문초록과 예상되는 독자의 반응 등 여러 가지 사항의 Major point, minor point를 구분해서 기술하시되, 게재 불가인 논문이라도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해 주십시오.

원고를 받으신 후 가능한 2주 내에 심사는 끝내주시면, '부인종양' 편집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뢰 후 3주가 지나면 심사를 독촉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관련 논문들(부인종양, 대한산부인과학회지, 대한폐경학회지 등)을 잘 인용하였는지도 심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논문 심사 시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으면 처음부터 반려할 수도 있으니 논문을 보시고 이런 점을 지적해서 바로 회신해 주셔도 됩니다.

# ASCCP 학회 참석기



순천향의대 남계현

지난 3월 13~17일, 5일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 질확대경 및 자궁경부 병리 학회(ASCCP: American society of colposcopy and cervical pathology) 2006년 Biennial meeting을 참가하였다. 한국에서는 이화여대 김승철 교수, 순천향의대 전섭 교수, 청주에서 개원하고 있는 안치석 원장 등 5명이 참가하였다. 이 학회는 매년 3월에 열리지만, 2년마다 크게 열리는 성격을 갖고 있다. 다음 학회는 2008년 3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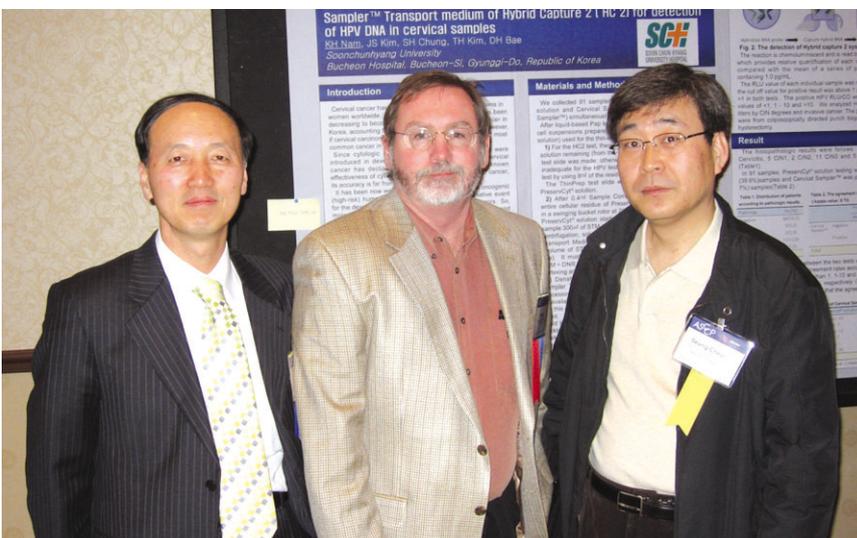
ASCCP 학회는 미국 질확대경 학회이고, 질확대경 연구를 전세계적으로 관장하는 세계 학회는 IFCCP(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ervical Pathology and colposcopy)다. IFCCP 차기 학회는 2008년 5월 뉴질랜드에서 개최 예정이다. ASCCP학회는 1964년 창립되어 2004년 창립 40주년 행사를 가졌다. 대한부인종양 콜포스코피학회가 1985년 창립하여 지난해 제주학회에서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및 학회사를 발간한 것을 상기하면, 역사가 우리보다 배가 되는 셈이다.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는 부인암 연구와 질확대경 연구를 동시에 관장하는 학회지만, 미국은 자궁경부이하 하부생식기의 질확대경 및 그와 관련된 임상적 연구를 주로 발표하는 학회가 ASCCP이고, 자궁경부암, 난소암을 비롯한 전반적인 부

인암 연구를 발표하는 학회는 SGO(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ASCCP 학회 회원 수는 3,500명 정도이다. ASCCP학회는 1992년 문호를 개방하여, 질확대경을 시행하고 있는 가정의, 질확대경 전문간호사, 피부과 전문의 등에 회원자격을 개방하여 학회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한국 교수 중 ASCCP 학회 정회원으로 등록된 교수는 약 20명 정도다.

이번 학회의 주된 전달 사항은 아무래도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HPV Vaccines)인 것 같았다. 머크사(Merck)의 4가 백신(quadrivalent vaccine:6,11,16,18 types)이 금년 하반기 시판될 것으로 예상하고, ASCCP 학회가 주도적으로 HPV 백신에 대해 전체 의사와 일반인들에게 교육, 홍보를 할 것을 교육시키는 학회였다. 본 학회 회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허부 여성 생식기의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해 본 학회 회원만큼 많이 아는 의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 시행되면, 본 학회가 주도적으로 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기본적으로 질확대경에 대한 초보단계 교육도 있고, 질확대경 경험이 많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진행자 교육도 있다. 산부인과 의사를 포함한 다른 분야의 사람들에게도 질확대경 시험을 시행



사지설명



한국인 참가자와 세비코그래피를 처음 개발한 A Staff 교수와 함께 촬영

하고 인증서를 주는 코스가 두 가지 있다. CMP 및 CRA 두 가지가 있는데, 미리 시험을 예약하고 치른다. 인쇄된 문제를 푸는 것과 질확대경 사진을 보고 임상문제를 푸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필자는 1998년 피닉스에서 개최된 ASCCP 학회에서 CRA 시험을 보고, 통과 인증서를 받았다.

이 학회가 한국과 다르게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분야가 따로 세 가지 더 있다. 그중 하나는 외음부 및 항문 피부질환(vulvar dermatology)이다. 외음부 피부질환 클리닉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피부과 의사가 강사가 되어 학회 때마다 강연을 하고 있다. 물론 강사도 ASCCP 회원이다. 외음부 피부 질환이라도 외음부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부를 시진하고, 전신질환과의 관계를 파악한 후 외음부 피부질환을 치료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다음 하나는 외음부통증(vulvodynia) 분야다. 학회 중간에 특별 심포지엄 형식으로 외음부통증치료를 교육시킨다. 내과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외음부 수술치료까지 다양하게 교육을 시킨다. 나머지는 항문 세포진검사 및 항문 질확대경 검사교육이다. 자궁경부 및 외음부 상피내종양(intraepithelial lesion)이나 암이 있는 환자에서 항문에도 전암단계(preinvasive lesion)소견이 부인과 질환 빈도의 10% 정도로 나타난다. 항문 세포진 검사 방법과 항문경(anoscopy)을 통한 초산 도포 후 항문에 나타나는 병변 교육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학회 회사 전시분야(exhibit booth)에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벤처기업인 바이오랩(Biomed Lab) 회사가 참가하여 HPV DNA chip을 미국 의사들에게 소개하였다. 미국에서는 로슈(ROCHE)를 포함한 두 개의 회사에서 HPV DNA typing에 대해 소개를 하였다. 현재 미국에서 HPV 검사는 다이진(Dygene)회사의 Hybrid Capture2 (HC2)가 FDA 공인을 받고 시행되고 있는데, 고위험군 바이러스 존재여부와 바이러스 농도를 알려주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HPV typing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HPV subtype에 따라 HPV 지속성(persistence)이 다르므로, 미국 의사들도 HPV subtype 검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느낌이 들었다. 일부 연자는 자궁경부암 일차 선별검사로 틴프랩(ThinPrep)을 통한

자궁경부세포진 검사와 인유두종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사한 경우 세포진은 정상이나 인유두종바이러스 고위험군 양성시 HPV subtype을 시행하여 아형(subtype)에 따라 추적 조사 기간을 달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를 포함하여 한국 참가자들은 4개 연제가 포스터로 채택되어 발표를 하였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된 한국의 디지털서비코그래피(Digital Cervicography)의 임상 연구 실적도 발표하였다.

암치료를 제외하고 질확대경 및 여성 하부생식기 질환을 대상으로 5일씩 학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좀 길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질확대경 외에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최신 지식 발표 기회와 초보자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동시에 준다는 것이 상당히 부러웠다. 한국에서는 90년대에 왕성하게 질확대경 교육이 시행되었지만, 최근에는 관심에서 멀어진 느낌이 있다. 전공의와 개원의를 위해 정기적인 질확대경 연수의 기회를 주는 역할을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가 해야 할 것이다.

학회에서 오후 4시간씩 이틀을 할애하여 질확대경 강의를 실시한다. 하루는 기초적인 강의를 하고, 또 다른 하루 4시간은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시술자에서 수준 높은 강의를 한다. 이틀째 자궁경부암의 초기 소견 및 선암(adenocarcinoma)의 질확대경 소견에 대해 애리조나 대학의 Kenneth D. Hatch의 강의가 인상적이었다. Novak 책 질확대경 분야를 맡아 교과서를 저술하였고, 현재 2007년 여름에 나올 질확대경책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날 2시간은 110명의 질확대경 증례를 보여주면서 전형적인 질확대경 소견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학회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동료교수 및 전공의와 함께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년을 구경하고, 곧 이어 팜스프링에서 열린 SGO 미팅을 잠깐 참석하는 것으로 긴 학회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하였다. 배운 것은 많은데, 무엇부터 정리하고 적용을 할까... 그러다가 또 한 해가 간다.

# 37차 SGO 참석기



연세의대 김성훈

벌써 2달이 지났지만, 지난 3월 22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26일까지 미국 팜스프링에서 열린 SGO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ists) 학회에 참가하였던 참관기를 쓰자니 다시 한번 학회에서의 감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학회'라는 단어는 저에게 '만남'이라는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발상과의, 새로운 사람과의, 그리고 오랜 친구와의 만남. 여기에 국제 학회는 낯선 세상과의 조우로 인한 설렘과 흥분이라는 또 다른 즐거움들을 더해 주었습니다. 늦은 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하여 180km를 차량으로 이동하여 만난 팜스프링스는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다가 산꼭대기부터 계속 사이까지 가득찬 커다란 하얀 바람개비 같은 풍력발전기의 행렬을 만나면서 접하게 된 거대한 휴양 도시로 도시의 쾌적하고 맑은 공기는 머리를 맑게 하여 즐거운 학회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도시였습니다.

SGO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1968년 Hervy E. Averette과 John J. Mikuta이 악성 종양에 대한 방사선 치료에 관한 학회에 참관 후 부인 종양학이란 분야에만 전념하는 학회가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여, 부인종양학을 위한 학회를 만들기 위해 뉴올리언스 Monteleone Hotel에서 만나 칵테일을 주고 받으며 학술 교류를 시작한 데서 비롯하였습니다. 현재는 전세계에 걸쳐 1,000명 이상의 부인종양학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종양학 분야에서의 최신 지견을 소개하고 부인암 및 관련 분야의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번 37차 Annual SGO meeting은 5일에 걸쳐 5번의 main plenary session, 8번의 postgraduate course, 4번의 express postgraduate course, 9번의 sunrise session 및 workshop, debate 및 industry symposium, lecture 등으로 구성되어 세계 각지에서 참석한 부인암 종양 의사와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 업적을 발표하였습니다.

학회 첫날인 3월 22일에는 postgraduate course로 종양학 분야의 advanced laparoscopy의 적용에 대해 최신 지견을 접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clinical research, medical coding, critical care of oncology patients에 대한 강의를 있었습니다. 특히 오후에 열

린 advanced laparoscopy in gynecologic oncology session은 매우 비싼 session 참가비 못지않게 학회에서 준비한 30여 구의 cadaver에 1명의 강사와 3-4명의 등록자가 직접 시술하여 볼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강의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날인 23일부터는 본격적인 학회 일정으로 접어들어 ovarian cancer 분야에서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른 초기 난소암의 진단이 plenary session에 발표되었고, surgical treatment, 예후 인자 및 molecular biology에 대한 최신 지견이 발표되었으며, neoadjuvant chemotherapy의 유용성 및 IP chemotherapy 등이 토론되었습니다. Endometrial cancer에 있어서는 초기 자궁내막암의 치료 및 tumorigenesis에 대한 최신 지견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endometrial hyperplasia를 subdivision하여 cancer로 진행될 확률을 예측한다든지 초기 자궁내막암의 수술 방법에 따른 비교(복강경 대 개복술)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산 병원의 남주현 교수님께서 'The efficacy and Toxicity of Belotecan (CKD-602), a New Camtothecin Analog Topoisomerase I Inhibitor, in Patients with Recurrent or Refractory Epithelial Ovarian Cancer' 주제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팜스프링스에서는 유일한 한식당에서 한국에서 오신 여러 교수님들과 식사를 하였는데, LPGA 참가를 위해 팜스프링스를 방문한 이지영 선수를 만날 수 있는 행운도 있었습니다.

24일에는 새벽부터 sunrise session이 진행되었으나 시차 적응에 실패한 저는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하여 좋은 강의 내용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는 clinical trial design 및 최신 연구되는 새로운 molecular marker의 임상 적용, 비교적 빈도가 적은 locally advanced vulva cancer, uterine papillary serous cancer의 치료에 대한 논의 및 방사선, 수술, 항암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Main Plenary Session에는 여러 주제가 발표되었으나, 그중에서도 초기 자궁내막암의 경우 NCI에 의해 진행된 3상 시험에 의하면 이제는 복강경에 의한 병기 결정을 위한 수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항



후 표준 수술 기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발표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날 점심 시간에 진행된 Industry Symposium은 3분야로 나뉘어 HPV vaccine, 재발성 난소암 등에 대한 내용 등이 다뤄졌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도움이 되었지만 동일 시간대에 한 강좌에만 참석이 가능하여 평소 관심이 있었던 재발성, 난치성 난소암의 치료에 대한 case-based 접근 방법에 대한 session에서 제시되는 상황에 대한 투표를 하며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Focused plenary session에서는 현재 부인암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항암 요법들이 소개되었으며, 특히 anti-vascular therapy가 기존의 세포 독성 항암 요법과 병합되어 사용되는 요법이 이제는 어느 정도 실용화가 되어질 것이라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마지막으로 진행된 Tumor board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적절하게 수술된 진행된 난소암 환자에서 IV+IP chemotherapy에 관한 내용이 전자 투표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5일에는 2006년에 새롭게 진행되는 GOG trial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Main Plenary Session에는 주로 자궁경부암 및 외음부암에서 림프절 양성인 환자의 처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trachelectomy를 시행 받은 환자의 장기 추적 관찰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항암제와는 다른 cancer를 유발하는 mechanism을 구성하는 특정 molecule을 targeting하는 새로운 치료법은 현재 연구 중으로 HER-targeted therapy 등이 소개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학회 일정은 쉽었지만, 귀국 일정으로 인해 오후에는 로스엔젤레스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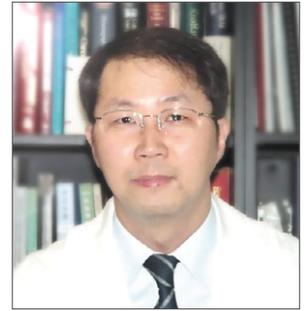
연일 계속되는 뻘뻘한 학회 일정에도 짹짹 둘러본 팜스프링스는 거대한 사막을 개척하여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미리 살펴본 바에 의하면 풍력발전기, 5개의 기후대를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는 케이블카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Desert Hill out-let 매장은 볼 만한 곳으로 사실 학회 일정 중 하루 오후를 할애하면 이 모두를 모두 접해 볼 수 있습니다.

SGO란 학회의 명성에 걸맞게 이번 학회는 규모나 내용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으며, 현재 GOG trial에 참여하려는 KGOG의 준비에 더욱 빈틈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KGOG가 국제 무대에서 당당한 위상을 뽐내려면 무엇보다 국내 부인종양학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며, 또한 윤리적 문제에서 clinical trial에 대한 국내 정서가 외국에서처럼 확립되지 않아 환자들이 흔히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여겨 실험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부인종양학회에서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혁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해외 학회 경험이 일천한 저에게 시야를 넓힐 기회를 주신 함께 참석하였던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97차 AACR 참석기



성균관의대 김 병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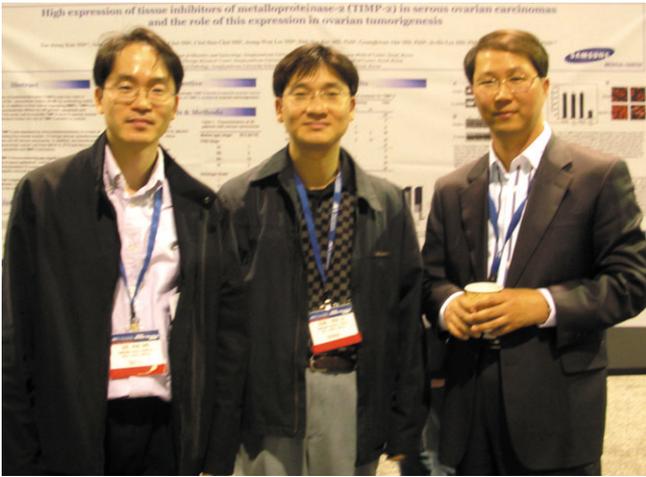
AACR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은 2006년도 이번 학회가 97회째라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역사가 거의 100년이 된 설명이 필요없는 전통있는 암관련 학회이다. 미국 내 암학회는 크게 임상 의사 위주의 ASCO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와 기초과학자 위주의 AACR이 있다. 원래는 같이 하던 학회가 1994년부터인가 나뉘어져 독립적으로 개최되고 있다고 한다. AACR에서는 암관련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초 연구를 임상에 적용하는 단계의 이행연구(translational research)가 많이 발표되기 때문에 임상 의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한다. 내가 맨 처음 이 학회를 방문한 것은 199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을 때였다. 서울대병원에서 전임의를 끝내고 원자력병원으로 옮긴 지 2년 만에 당시에는 처음으로 해외 학회를 참석하였기 때문이었기도 하겠지만 샌프란시스코라는 낭만적인 도시와 웅장한 학회의 규모(한꺼번에 20개 이상의 발표장이 동시에 문을 여는 것과 같이)에 완전히 넋이 나갔었다. 심지어는 그 학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약간의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학회 자체가 좋았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학회와는 너무나 다르게 오전 7시부터 'Sunrise Session' 하는 특별 강연을 필두로 학회 5일 동안 줄곧 수많은 사람들이 포스터 앞에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답하는 모습이 학구적이고 일반 연재 발표도 줄을 서서 질문을 기다리는 모습 등이 인상적이었다. 돌아와서는 주위 사람들에 침이 마르게 자랑하였던 기억이 난다.

올해 97회 학회는 2006년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렸다. 학회는 새롭게 단장한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는데 17,000여명이 등록하고 6,000여 개의 초록이 접수되었다. AACR 학회는 Plenary session, Symposium, Minisymposium, Meet-the-Expert, Poster session, Forum 등의 다양한 형식의 학회 운영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학회 본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educational session과 methods workshop은 특정 주제에 대하여 최신 지식으로 잘 요약된 review를 제공한다. 그러나 단점

은 각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회비 이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너무 많은 세션이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청강할 연재를 정하는 일이 머리가 아플 정도라는 것이다.

본 학회의 Opening Plenary Session에서는 "Looking into the Future of Cancer Therapy"라는 주제로 Bert Vogelstein, Todd R. Golub, Gregory L. Verdine, Ralph Weissleder, Susan D. Desmond-Hellmann, Irving L. Weissman 등이 각각 cancer genetics, molecular diagnostics, chemistry, imaging, clinical research, and stem cell biology에 대하여 특별 강연을 하였다. 특히 Vogelstein은 대장암의 다단계 발생과정의 유전자 변이들이 어떻게 예방, 진단, 치료에 이용될 수 있을지를 소개하고 향후 전이 과정, epigenetic change, 암세포 주변 기질 변화의 유전자 변이, 혈관 생성 관련 유전자 변이, 면역 반응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 등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하였다.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배아줄기세포에 반하여 암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성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여러 인체 암종에서 암줄기세포에 대한 characterizatoin과 관련 단백질 표지물을 구명함으로써 줄기세포를 구별하고 이의 기능을 규명하는 연구가 100여 편 이상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유방암 세포주 MCF-7에서 MUC-1 발현이나 비소세포암 세포주에서 uPAR/87+ 발현 여부 등이 전체 암세포종에서 암줄기세포로 간주되는 side population의 특징적인 지표로 발표하였다. 흥미롭게도 미국 연구 중 나의 mentor였던 Carl C. Baker 그룹에서 자궁경부 줄기 세포로 추정되는 세포군을 characterize하였는데 transferrin receptor 발현이 없고 integrin  $\alpha 6$  과발현을 하며 일반적 상피 줄기 세포와 유사한 특징을 가졌지만 매우 특징적으로 HPV VLP와 10배 이상의 강력한 결합 능력을 가진 것을 보고하고 아마도 HPV가 이러한 자궁경부 줄기세포에의 감염과 상호 작용으로 지속 감염을 일으키고 결국 암으로 진행되는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일부 연구는 간질 줄기세포를 치료에 이용하는 연구도 있었는데 암 조직 주변의 간질 조직에 골수에서 비롯된 기질 줄기세포가 잠입되



는 속성을 이용하여 IFN 등을 주입한 줄기세포를 난소암 동물 모델에서 복강 내 투여하여 실제 난소암이 소실되는 것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각광 받고 있는 분자 치료, 특히 혈관생성억제 인자 등의 작용 매커니즘 연구중 암주변 미세 환경에 대한 연구 발표가 활발하였다. 즉 암세포와 암주위 간질세포들 간의 상호관계나 암주위 간질 세포의 여러 가지 특성이 보다 세밀하게 규명되고 그 상호 작용이 밝혀졌다. 또한 개별 분자 치료를 기존 항암치료와 병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다수의 분자 치료를 병합하여 투여하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Microarray도 점차 진화하여 CGH based microarray, chip CHIP, DNAase hypersensitive status array 등으로 세분화된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분자 치료의 반응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자 영상 기법(molecular imaging)도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부인종양파트로는 일요일(4월 2일)에 있었던 난소암에 대한 연구 세션이 유일한 미니심포지엄이었는데 여기서 난소암의 molecular profiling, 난소암의 전임상 모델에서 targeted therapy, 면역학적 치료, 난소암 screening을 위한 profiling의 효용성과 난소암 임상 시험에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묶어서 강의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포스터 세션에서 가톨릭의대 안용식 교수가 자궁경부암의 유전자, 단백 발현 양상을 포함하여 무려 8편의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부인종양학의 위상을 확실하게 드높였고, 우리는 난소암의 TIMP-

2 과발현이 시스플라틴에 의한 세포사멸을 억제하고 그 기전은 일부 MMP-2를 자극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 외 서울대 송용상 교수가 GADD153이 celecoxib에 의한 자궁경부암 세포주의 아프토시스 기전의 타겟일 가능성에 대하여, 울산의대 김용만 교수가 dendritic 세포 분화에 관한 interferon- $\gamma$  연구를, 이화의대 문해성 교수가 자궁경부암에서 thymosin  $\beta_4$ 와 annexin I, II mRNA 증가를, 계명대 조치흠 교수가 에스트로젠이 자궁근종의 cdk inhibitor를 억제하여 세포주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회장 여기 저기를 정신없이 다니다가 끼니도 제대로 챙기기 어려울 만큼 분주히 학회를 끝내고, 같이 갔던 동료들과 베네스다의 미국 국립암센터를 방문하였다. 911 테러 이후 많이 달라진 security check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었으며 1999년 당시 짓고 있던 병원 건물이 너무나 멋있게 지어져서 또한 번 부러움을 느꼈다. 내년 AACR은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된다고 하며 돌아오는 길에 뉴욕을 들러 이틀에 걸쳐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맘마미아"와 "오페라의 유령"을 관람하고, 올해 AACR 학회를 마감하였다. 일정이 너무 피곤하였던지 같이 갔던 동료들은 "오페라의 유령"의 그 아름다운 노래들을 자장가로 깊은 잠에 빠져들기도...



# EUROGIN 학회 참가 후기



한국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바이오학술부 부장 이상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6th International multidisciplinary congress, EUROGIN (EUropean Research Organization on Genital Infection and Neoplasia; 4월 23일-4월 26일)을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인유두종바이러스 및 백신에 관한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일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학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Palais des Congress에서 열린 EUROGIN은 자궁경부상피 내 종양(cervical neoplasia)의 진단, 예방 및 인유두종바이러스 (HPV)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고, 곧 시판될 자궁경부암에 대한 백신에 관하여 여러 방향에서 강의 및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의, 소아과 의사, 가정의학과 의사, 연구원, 보건 행정인 등 다방면의 많은 사람들이 학회에 참가하였고, 미디어 이벤트에는 세계 각국의 주요 신문 기자들도 다수 참가하였습니다.

23일(일요일)에는 7가지 주제(Emerging issues on HPV infection: from science to practice; Colposcopy; Vular disease; Cytopathology; Molecular markers of CIN and cervical carcinoma; Office gynecological imaging)에 관한 Training course가 있었습니다. Training course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강의 중에도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저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Emerging issues on HPV infection을 선택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내용은 암유발 인유두종바이러스의 자궁경부 세포에서의 발암 기전 및 인체 내에서의 면역 반응을 심도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인유두종바이러스의 진단법 및 환자에게 적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고, 앞으로 자궁경부암에 대한 백신이 상용화되면 진단 과정의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GSK와 SP-MSD에서 개발하여 상용화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 백신에 관한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GSK는 자궁경부암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ASO4라는 항원보강제를 사용하였고, 가장 주요한 암유발성

인유두종바이러스 16, 18번 외에도 세번째, 네번째로 빈도가 높은 45, 31번의 감염을 예방하며, 이러한 효과가 4.5년간 유지되었다는 결과를 2006년 4월에 Lancet에서 발표한 것에 이어서 EUROGIN 학회를 통해서 더욱 그 의미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SP-MSD는 자궁경부암과 생식기사마귀를 고려하여 인유두종바이러스의 네가지 타입인 6,11,16,18번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예방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 백신의 상용화는 두 회사만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및 소아과, 가정의학과, 일반 의사가 백신을 맞는 대상, 백신을 놓는 주체 등에 관하여 뜨거운 토론을 하였고, 보건 정책자는 백신의 사용에 따른 공중 보건 효과 및 비용-효과에 대해 발표를 하여 이 새로운 백신이 갖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실감하게 하였습니다.

24일에는 Plenary session, 25일에는 scientific session을 통해서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 및 자궁경부암과의 관계, 자궁경부암에 대한 백신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의학적, 사회 정책적으로 자세히 세분화하여 강의 및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교실 성마오로병원의 김찬주 교수님께서 이번 EUROGIN학회에 참가하시어 포스터 발표(The clearance of human papillomavirus in Korean women without cervical conization; its correlation with specific types and other risk factors)뿐만 아니라 scientific session에서 구연 발표(Novel interaction between HPV E6 and BARD1 and its biologic roles)를 하시어 활발한 질문 및 대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라는 도시 이름이 주는 낭만만큼이나 멋진 샹젤리제 거리와 시야를 띄우는 시원한 파리의 하늘을 아쉽게도 학회장의 유리창을 통해서만 즐길 수 있었지만, EUROGIN 학회장은 매우 중요한 이슈를 공감하는 학회 참가자들의 마음이 한껏 흥분되어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EUROGIN의 아시아 스타일인 AOGIN이 2006년 9월에 필리핀에서 열린 예정인데, 자궁경부암은 특히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AOGIN 학회에서 논의될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및 예방 백신에 관한 새로운 내용도 무척 기대됩니다.

## 2006 ASCO 참관기



서울아산병원 김 종 혁

2006년 6월 1일 아침, Atlanta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 ASCO 참석이 벌써 다섯 번째가 됩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ASCO는 부인종양학 관련 영역이 전체의 방대한 일정에 비하여, 소규모로 편성되어 있는 학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ASCO에 참석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 타 부인종양 관련 학회에 비하여 학회 출석 일정이 여유로워 숙소에서 혼자 시간을 다소 가질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미국 NIH 연수 시절 모시고 있던 Dr. Fojo 선생님(medical oncologist)을 뵈 수 있으며, 셋째는 국내의 내과 종양학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만남으로 평소 모르던 많은 정보도 얻고 인간적 관계도 쌓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번 ASCO는 4박 5일의 짧은 일정을 계획하였지만 여유로운 학회 일정 덕분에 이번에도 소설책 4권과 베스트셀러 교양도서 3권을 읽을 수 있었고, 대부분의 학회 일정을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간 젊은 내과 선생님들과 보냈습니다.

Atlanta는 공항에서 transit할 때만 몇 번 가보았을 뿐, 직접 시내에 가보게 되는 것은 처음인지라 다소 설레기도 하였으나 관광지 아니고 미국에서 유명하게(?) 볼 것이 별로 없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 더더욱 여유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첫날 오후에 숙소에도착하여 휴식을 가진 후, 내과 선생님들과 근처의 한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효표 교수님, 김재욱 교수님과 타 대학의 많은 내과 선생님들을 뵈게 되었습니다. Atlanta는 한인 타운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곳 교민들은 타 미국지역과는 달리 한인 타운이 비교적 부촌(富村)에 자리 잡고 있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일찍 학회에 등록을 하고 초록집과 교육 책자를 수령하고는 여유있는 일정을 계획하는데, 같이 간 젊은 내과 선생님들은 세세하게 학회 일정을 살피고 하루 종일 빼곡하게 공부할 일정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텅달아 긴장도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부인종양학 session에 참석하였는데 2층의 큰 강의실이 빈자리가 적을 정도로 채워져 있음에 다소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일정

이 짧아 Fojo 선생님께 미리 연락을 못 드렸었는데, 역시나 부인종양학 session 강의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인사를 하고 같이 지내던 연구원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선생님께서 앞의 슬라이드를 가리키시며 강의 끝나고 이야기하자고 하셔서 꼼짝없이(?) session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2006년 ASCO 부인종양학 session의 main 주제는 역시 복강 내 항암화학요법이었습니다. 금년도 SGO에서 이미 발표된 내용의 복습으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강 내 투여의 임상적 효능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이루어졌지만, 전통적 치료법인 항암화학제의 정맥투여와 비교한 총 7개의 실험에서 대상군이 적거나 실험디자인 등의 문제로 임상적 적용이 외면되어 왔다. Amstrong 등이 난소암 환자의 치료에 획기적 발전을 가져온 Paclitaxel이나 Platinum과 대등한 GOG 172 실험결과를 발표에 따르면, 총 415명의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실험에서 paclitaxel과 cisplatin의 정맥투여에 비해 복강 내 투여는 16개월의 생존율 향상을 보여 향후 적절히 종양감축이 된 난소암 환자의 표준치료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긍정적 결과는 정맥투여에 비해 복강내 투여가 잔존병변에 오랫동안 고농도의 항암화학제의 효과가 지속되고 Krasner 등이 paclitaxel과 carboplatin의 약동학 분석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흡수된 약제의 전신노출도 상당하여 생체 이용율이 높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부작용도 더 심하게 발생하여 치료 중 QOL (quality of life)이 불량하고 1년 후에도 신경독성은 더 많이 지속되었는데, Wenzel 등은 치료 전 QOL이나 신경독성, 복부팽만의 정도가 복강내항암화학요법에 대한 환자의 부작용 정도와 치료주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복강내 항암화학요법은 이러한 일차적 치료로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복수를 조절하거나, 일차치료 후 강화요법, 2차추시수술에서 종양이 존재하거나 작은 크기의 재발성 병변이 있는 경우 등의 임상적

효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복강 내 항암화학요법의 일환으로서 온열요법, 면역요법, 방사선면역치료, 그리고 새로운 항암화학제의 복강내 치료적용을 위한 연구 발표가 활발히 진행 중임이 발표되었습니다.

교육강연에서는 역시 복강 내 항암화학요법이 가장 초점이었으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자궁체부암의 치료, 부인암 치료 후의 생식능력의 보존문제가 다루어졌으며 난소암 치료의 표준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차 치료 후 대부분의 난소암 환자는 일차치료에 관해를 보인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환자가 재발을 겪어, 난소암의 재발을 예방하거나 늦추기 위한 연구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강화요법과 유지요법을 주를 이루고 있으나, 더 많은 횟수의 치료주기나, 복강 내 투여, 또는 고용량의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강화요법은 생존율에 긍정적인 영향이 없었고, 인터페론, 단클론항체, 그리고 항암화학요법을 이용한 유지요법 역시 생존율에 긍정적인 영향이 없었다. 그럼에도 강화요법과 유지요법에 대한 연구가 가장 희망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난소암 환자의 추적관찰 중 직면하는 큰 판단 문제 중의 하나는 재발의 다른 징후와 증상 없이 CA 125만 상승하는 경우일 것이다. 이 경우 항암화학요법을 바로 시작하지 말고 정기적인 영상 진단(CT)을 실시해야 하고 치료는 객관적 병변이 발견되거나 증상이 발현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 이때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randomized trial이 진행 중이다.”

한편 Bevacizumab에 대하여, 이는 FDA승인을 받은 원격전이 가 있는 대장암 환자에 사용되는 제제로 platinum 저항성 난소암 환자에서 topotecan 또는 liposomal doxorubicin 사용 후에도 진행되는 난소암 환자에서 임상적 효능이 있었다는 제2상 임상시험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ASCO에서는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강윤구 교수님이 국제임상연구의 PI로서 연구 설명이 있었는데, 국제 학회에서 상승된 한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 부인종양학 분야도 GOG 등의 임상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머지않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의 짧은 학회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현재 Florida의 Tampa에서 연수 중인 원자력의학원 최석철 선생님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운동도 한번 하고 미국에서의 연구 생활 이야기도 듣고 가족들과 식사도 한번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항상 해외학회를 다녀오면서 느끼고 반성하는 것은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능력은 구미 선진국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면서도, 환자 한사람, 한사람을 임상 연구의 틀에 넣어 환자를 통해 배우고, 의학 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KGOG를 통하여 국내 다기관 임상연구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으며 여러 국제 임상 연구의 일원으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시니, 진정한 의료 선진국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참관기를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여성 건강권 수호를 위한 대토론회 II

### 자궁경부암 정책포럼 딸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 일 시: 2006년 7월 26일(수) 15:00~18: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최: 국회의원 안명옥
- 주 관: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한국걸스카웃연맹
- 후 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프로그램: 15:00~15:30 개회식  
15:30~16:10 제1부 [도입] 자궁경부암 환자의 삶(영상물 상영)  
16:10~16:30 제2부 [서명식] 여성건강 및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선언문  
16:30~17:50 제2부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 여성건강의 중요성 및 여성 건강권 수호를 위한 방안  
주제발표 2. 자궁경부암 정복! 이제 치료에서 예방으로  
지정토론 및 질의답변
- 로비행사: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 및 이벤트



# 자궁경부암 HPV 진단 워크숍

- 일 시: 2006년 6월 23일(금) 오후 5시
- 장 소: 가톨릭의과학연구소 1023호
- 주제: Clinical Implications of HPV Test



사회: 김재훈 (연세의대 산부인과)

시 간	순 서	담 당
5:00~5:10	개회사	강순범 (서울의대 산부인과)
Session I		좌장: 강순범 (서울의대 산부인과)
5:10~5:25	한국 여성의 HPV 감염 실태	신해림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
5:25~5:40	한국 여성들의 성생활 실태	이상은 (한국GSK 바이오 메디컬부)
5:40~5:55	국민 및 의사를 위한 HPV 감염에 대한 홍보 전략	김영태 (연세의대 산부인과)
5:55~6:00	초청토론	이찬휘 (SBS 보도본부 문화과학부)
Session II		좌장: 최호선 (전남의대 산부인과)
6:00~6:20	HPV test의 국내 현황	차영주 (중앙의대 진단검사의학과)
6:20~6:40	DNA chip을 이용한 multicenter HPV test에 대한 연구	홍성란 (성균관대의대 병리과)
6:40~7:00	HPV test의 표준화 전략	김영탁 (울산의대 산부인과)
7:00~7:05	지명토론	조치흠 (계명대의대 산부인과)
7:05~7:35	저녁식사	
Session III		좌장: 김경태 (한양대의대 산부인과)
7:35~7:55	HPV test 보험적용 기준 제안	김승철 (이화대의대 산부인과)
7:55~8:00	초청토론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총괄팀)
8:00~8:05	지명토론	류기성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Session IV		좌장: 박종섭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8:05~	전체토의	이찬휘 (SBS 보도본부 문화과학부) 송용상 (서울의대 산부인과)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총괄팀) 류기성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조남훈 (연세의대 병리과) 김종원 (성균관대의대 진단검사의학과)

## 73차 GOG 업무회의 참석기



국립암센터 자궁암센터 강석범

지난 7월 워싱턴 D.C.에서는 Gynecologic oncology group의 제73회 회의가 있었다. 이에 Korean gynecologic oncology group에서도 한양의대 김경태 교수님을 위시해 4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2명의 연구간호사가 이에 동행하게 되었다. 대표단과 동행하여 회의를 참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에 간단한 참관기를 적어보려 한다. 일 년에 두 차례씩 개최되는 이 회의에서는 향후 GOG가 진행하게 될 모든 임상시험의 제안들이 검토되고 채택되게 된다. 또,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표된 임상시험의 성과를 알리기도 한다. 3일간 진행되었던 회의 중, 1일은 심포지엄으로 최신지견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며, 2일은 본격적인 임상시험 제안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가 이루어진다.

폭염 속에서 시작한 첫날은, 고령(elderly) 환자들의 임상시험에 대한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Geriatric oncology 분야에서 대가로 유명한 Balducci와 Muggia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필요성이 매우 급박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으며,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임상시험에 GOG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엿보게 해 준 기회였다. 이어서 고령 암환자가 현재 over-treat되고 있는지, under-treat되고 있는지에 대해 열린 토론이 시작되었으며, 결국 고령암환자의 다양성과 이 집단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이 양 극단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어서 고령환자에서의 항암제 약력학(pharmacokinetics)과 수술 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금번에 GOG에서 시작한 고령 난소암 환자에서 paclitaxel-carboplatin 항암요법에 대한 제 2상 임상시험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둘째 날,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회의는 잠시의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이어졌다. 필자는 오전에 난소암 분과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각 분과마다 따로 제출된 임상시험 제안 및 진행상황을 검토하게 된다. 제출된 임상시험제안은 GOG에 의해 선정된 reviewer에 의해 검토되고, 제안을 검토한 reviewer가 장단점 및 의견을 발표한다. 발표 후 뜨거운 토론이 이

루어지고 제안의 채택여부는 위원회의 표결에 의해서 결정된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러한 토론 및 표결의 진행이 외부에 완전히 공개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투명성이 GOG 임상시험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 짐작되었다. 또 한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근 반나절 간 진행된 회의에서 논의된 수십 가지의 임상시험제안들 대부분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의 가운데서 가장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이 바로 진행성 난소암에서 IV carboplatin과 IP carboplatin을 비교하는 3상 임상시험 제안에 대한 것이었다. 잘 알다시피 GOG 172의 경우, 일부에서는 cisplatin을 사용하여 대조군을 설정한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IV carboplatin을 대조군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IP 항암화학요법의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수많은 환자들에게 IV arm을 투여하는 것 자체가 쓸모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향후의 진행성 난소암의 3상 임상시험에서의 가장 큰 난제는 GOG 172와 기존의 IV paclitaxel-carboplatin 요법 중 어느 것을 대조군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으로 예측된다. 오후엔 각 장기별 종양 분과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부인종양학(외과), 종양내과학, 종양방사선과학, 삶의 질 평가 등 세부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된다. 또한, 시험적인 치료에 대한 분과가 있어 새로운 시험물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금번 분과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와이어스가 내놓은 CCI-779, 노바티스의 RAD001 등 mTOR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억제제들로서, 이미 일부 고형암에서는 임상시험이 활발히 진행 중인 신후보물질이다. 이행성 연구(translational research)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향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KGOG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 의욕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날, 마지막 날은 각 분과 회의를 거친 제안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회의였다. 각 분과에서 긍정적으로 채택되어 세부 분과의 검토 및 수정을 거친 제안들이 마지막으로 확정되는 자리였으므로 그 논의 과정 또한 역시 흥미진진하였다. 또한, 임파부종에 대한 미니 심포지엄이 있었으며 림프부종에 대한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최신 지견에 대한 나눔을 가졌다. 이러한 심포지엄 후 곧바로 림프부

종에 대하여 GOG가 시작하는 임파부종에 대한 두 가지 임상시험의 소개가 있었다. GOG 임상시험은 이러한 심포지엄을 통하여 회원들간의 문제의식 공유와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이 GOG 임상시험의 단단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이은 토의와 발표로 어느 학회보다도 그 내용이 더욱 알찼다. 무엇보다도 유익했던 것은 수많

은 훌륭한 임상시험을 수행한 GOG의 임상시험 수행 인프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임상시험 주제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임상시험 인프라를 하루 빨리 벤치마킹하여 세계적 임상시험 그룹으로서의 KGOG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EORTC-GCG 모임 참가기



서울의대 산부인과 김재원

부인종양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임상시험의 대부분은 미국 GOG와 유럽의 EORTC-GCG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Gynecologic Cancer Group), 독일의 AGO, 영국의 MRC 등에서 시행된다고 할 수 있다. GOG 업무회의에는 2003년 7월 모임을 참관한 이후에 2차례 더 가서 봤기 때문에 흐름을 파악한 바 있는데 유럽의 모임에는 참가할 계기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이번 21차 대한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에 EORTC-GCG의 주요 인사인 Ignace Vergote가 초청 연자로 오게 되면서 도움을 받아 가게 되었다. EORTC-GCG 모임은 미국 GOG과 유사하게 일 년에 두 번씩 개최되는데 올 4월 모임은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열렸다. 그단스크는 1980년대 초반 바웬사를 중심으로 조선소 노동자들의 자유노조 운동이 시작된 곳으로 유명하고 2차 세계대전

의 그단스크 (단치히) 전투로도 유명한 곳이다. 실제적인 EORTC-GCG 모임 전달에는 개최지 국가의 해당학회 주관으로 심포지엄을 갖는다. 이번에도 역시 폴란드부인종양학회 주관으로 27일에 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엄 강의 내용은 학회에서 통상적으로 다루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더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

EORTC 및 EORTC-GCG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겠다. EORTC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암연구조직으로 벨기에의 Henry Tagnon 교수 등에 의해 1962년에 창설되었고 1968년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당시 이러한 조직을 만든 이유는 단일 국가 또는 단일 기관만으로는 적절한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설립 이후 EORTC는 유럽내 여러 국가/기관간 다학제적 연구와 협력의 틀로 역할을 다해왔다. 현재 EORTC에는 30여 개의 다학제적 연구군(硏究群)을 기반으로 32개국, 2500여 자연과학자 및 임상연구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60여 개 기관, 300여 병원이 가입되어 있다. 연간 EORTC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신환 수는 6,500여 명에 달한다. EORTC Data Center의 운영자금은 1972년부터 미국 NCI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EORTC 총회는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EORTC 이사회가 실제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1974년에 조직된 Protocol Review Committee (PRC)는 종양학의 모든 분야의 대표자가 참여하며 각 연구군에서 제출된 모든 임상시험 계획서를 대상으로 과학적 가치, 방법론,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최종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Scientific Audit Committee (SAC)는 1982년에 조직되었는데 각 연구군의 활동, 과학적 결과물, 전체적인 연



EORTC-GCG 회의는 40여 명이 모인 작은 모임이었다.

**Table 1 . EORTC-GCG open protocols as of June 2006**

Protocol	Title	Target accurat
55012	A phase III study of Cisplatin plus Topotecan followed by Paclitaxel plus Carboplatin versus Paclitaxel plus Carboplatin as first line chemotherapy in women with newly diagnosed advanced epithelial ovarian cancer <i>Trial Coordinator: I. VERGOTE - LEUVEN</i>	800
55051	A multi-national, randomized, phase III, GCIg intergroup study comparing pegylated liposomal Doxorubicin (CAELYX®) and carboplatin vs. paclitaxel and carboplatin in patients with epithelial ovarian cancer in late relapse (>6 months) <i>Trial Coordinator: A. FERRERO - TORINO</i>	864
55041	A randomized, multicentre, phase III study of Erlotinib versus observation in patients with no evidence of disease progression after first line, platinum-based chemotherapy for high-risk Stage I and Stage II-IV ovarian epithelial, primary peritoneal or fallopian tube cancer <i>Trial Coordinator: A. JIMENO LARGO - MADRID</i>	830
55955 MRC OV05	A randomised trial in relapsed ovarian cancer: Early treatment based on CA 125 levels alone vs Delayed treatment based on conventional clinical indicators <i>Trial Coordinator: M.E.L. VAN DER BURG - ROTTERDAM</i>	400
55971	Randomized Phase III study comparing upfront debulking surgery versus neo-adjuvant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Stage IIIc or IV epithelial ovarian Cancer <i>Trial Coordinator: I. VERGOTE - LEUVEN</i>	704
55984	A randomized trial of Adryamicin, Cisplatin chemotherapy versus Paclitaxel Adriamycin and Cisplatin in patients with metastatic/relapsed or locally advanced inoperable endometrial cancer <i>Trial Coordinator: N. REED - GLASGOW</i>	312
55991	A randomized trial of adjuvant treatment with radiation plus chemotherapy versus radiation alone in high risk endometrial carcinoma <i>Trial Coordinator: C. F. DE OLIVEIRA - COIMBRA</i>	400
55994	<b>Randomized phase III study of neoadjuvant chemotherapy followed by surgery vs. concomitant radiotherapy and chemotherapy in FIGO Ib2, IIa &gt; 4 cm or IIb cervical cancer</b> <i>Trial Coordinators: F. LANDONI - MILANO</i>	<b>686</b>

구 우선순위와 전략에 대한 검토를 거쳐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EORTC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EORTC 본부에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중 Data Center는 통상의 암연구와 임상시험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전임상, 임상 I, II 상 연구 및 대단위 무작위 다기관 III 상 임상시험을 포함한 모든 EORTC 연구, 최종적인 결과물의 출판에 대해 논리적, 과학적 지원을 담당한다. 130여명의 연구자 - 임상 의사, 통계전문가, 자료관리 전문가, 삶의 질 전문가, 건강-경제 전문가, 연구 전임의, 기타 행정부서 담당자 - 가 소속되어 활동한다. Data Center 산하 *Monitoring Unit*에서는 EORTC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을 현지 실사하여 GCP (Good Clinical Practice)를 잘 따르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EORTC 와 다른 기관 간의 국제적인 협력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NCI/EORTC 합동 심포지엄이 1978년부터 개최되었고 2001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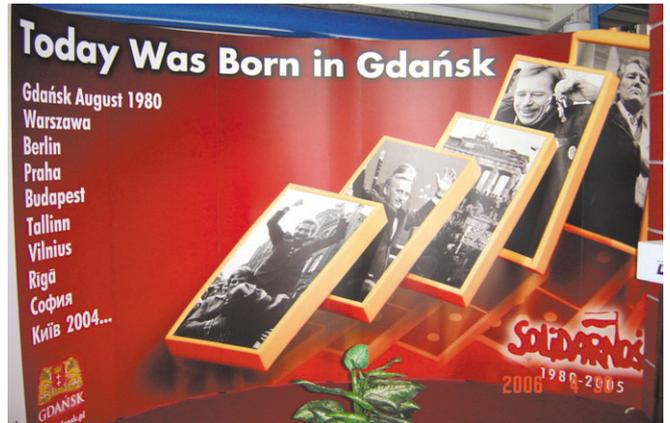
터는 AACR/NCI/EORTC로 확대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EORTC-GCG는 1977년에 'Cancer of the Ovary Cooperative Group'로 처음 만들어졌다가 1982년 'Gynaecological Cancer Cooperative Group'로 확대되었다. EORTC-GCG는 집행부, 프로토콜 위원회, 3개의 종양 부위별 위원회 (Tumor Site Committee, TSC) - Cervix-Vagina-Vulva, Corpus-Gestational-Trophoblastic Disease, Ovary-Fallopian Tube - 와 세부전공 관련 위원회 - Surgery, Radiotherapy, Chemotherapy, Quality of Life, Quality Control, Translational Research, Hereditary Cancers - 로 구성된다. 현재 EORTC-GCG에는 82개의 기관 (40 정회원 기관, 42 준회원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임상시험 결과는 1984년 이후 주요 잡지에 50여건 이상의 논문으로 발표된 바 있고 현재 EORTC-GCG에서

시행중인 3상 임상시험은 표 1과 같다. EORTC-GCG는 GCIG (Gynecologic Cancer Intergroup)의 창립 회원기관이며 미국과 유럽의 여러 임상시험 그룹 - GINECO/ARCAGY, AGO, ANZGOG, MRC, NCIC, GEICO, NSGO 등 - 과 공동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EORTC-GCG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에 임원 재선출이 있었는데 회장 및 사무총장은 재선되었고 회계담당은 프로토콜 위원장인 I. Vergote가 겸임하도록 되었다. EORTC-GCG의 2005년 예산을 보면 수익은 15만 유로, 지출은 4만여 유로였고 현 잔고는 20여만 유로라는 treasurer의 보고가 있었다.

4월 28일에 시작된 EORTC-GCG 모임은 3개로 나뉜 TSC부터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논의되었지만 KGOG와 공동연구가 제안된 EORTC 55994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EORTC 55994는 FIGO Ib2, IIb, 또는 4cm 이상의 IIa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선행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후에 수술을 시행하는 시험군과 방사선요법 및 동시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대조군을 비교하는 3상 임상시험으로 686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2002년 3월 시작되었다. 2006년 4월 현재 261명만이 연구에 등록되어 38%의 낮은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환자 등록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서 EORTC에서는 다른 임상시험 그룹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 GOG는 2006년 1월 73차 모임에서 이러한 EORTC-GCG의 제안을 논의한 바 있으나 공동연구 제안을 거절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의 프로토콜 자체에 대한 이견도 이견이지만 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유사한 내용의 임상시험인 GOG-201이 이미 환자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대상 환자는 2003년 부인암등록사업 자료에 따르면 Ib2, IIa, IIb 환자는 각각 221, 322, 616명이 등록되어 이 중에 약 2.5% 즉, 연간 30 여명만 EORTC 55994에 참여시켜도 EORTC 55994 연구의 중단을 막고 향후 진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KGOG와 EORTC의 공동 연구(intergroup study)는 KGOG의 한 단계 도약을 의미한다고 본다. 3상 다기관 공동 임상시험의 경험이 없는 KGOG는 이 과정에서 많은 tip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참여기관과 참여자에 대한 교육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가지 기대효과는 이 공동 연구로 KGOG가 GCIG (Gynecologic Cancer Intergroup)에 가입할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KGOG 입장에서는 GCIG에 가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부인암 관련 임상시험그룹으로서 GCIG에 가입해 활동할 수 없다면 마치 축구는 열심히 하면서 월드컵 본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상의 어떤 나라의) 국가대표 축구팀의 처지와 같아지기 때문이다.

그 밖에 관심을 가지고 본 프로토콜은 곧 개시될 예정인 ICON-6, ICON-7였다. ICON-5는 역시 다섯 군 간에 별다른 생존율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올해 ASCO에서 발표돼 이 연구에 큰 기대를



그단스크가 세계사 변혁의 시발점이었다는 포스터가 공중에 있었다.

걸었던 여러 사람을 실망시킨 바 있다. ICON-6는 3 arms 연구로 arm A는 대조군으로 통상적인 항암제 6 주기를 시행하고 유지요법으로 위약을 18개월까지 사용한다. arm B1은 항암제 6 주기 사용 중에 동시에 AZD 2171을 사용하고 이후에는 위약으로 유지요법을 시도한다. 이 약제는 bevacizumab과 유사한 기전의 VEGF 저해제이다. arm B2는 B1에 더해서 유지요법으로 AZD 2171을 18개월까지 사용하는 군이다. 이 임상시험은 표적치료를 일차 항암요법에 포함시켰을 때의 효과를 보고 또한 유지요법에 포함시킨 경우의 효과도 볼 수 있는 임상시험으로 그 결과가 기대된다. ICON-7은 MRC가 주도하는 임상으로 carboplatin+paclitaxel 6 주기를 사용하는 대조군과 carboplatin+paclitaxel+bevacizumab (7.5mg/m<sup>2</sup>) 6 주기 + bevacizumab 12 주기 사용하는 시험군을 비교하는 3상 임상시험이다. 각 군당 760명을 모집하며 stage I, grade 3 이상의 난소암, 난관암, 복막암을 대상으로 한다. 특이한 점은 일차적 연구 측정 결과가 무진행 생존기간 (progression free survival)이라는 점이다.

끝으로 회의 기간 중에 들었던 EORTC Scientific Audit Committee (SAC)에서 EORTC-GCG에 가해진 비평을 언급하고 싶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young blood'의 참여가 부족하다. 둘째, 이행성 연구 및 bio-banking 계획이 없다. 셋째, 장차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략 부재. 넷째, 임상시험 참여 환자를 어떻게 늘려 갈지에 대한 계획 부족. 첫 번째 항목을 제외하고는 KGOG에도 자극이 되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역시 KGOG는 역사가 짧은 반면 주요 동력이 '젊은 피'라는 점에서 밝은 미래를 예상해 본다.

# 제 12차 대한부인종양 · 콜포스코피학회 심포지엄

개최일: 2006년 11월 17일(금)

장 소: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08:00~08:50 등록  
08:50~09:00 개회식

## Part I 부인암 진료권고안 좌장 : 김경태, 남주현

09:00~09:10	진료권고안의 작성 과정 보고 및 향후 계획	박상윤 (국립암센터)
09:10~09:40	자궁경부암 진료권고안	김영탁 (울산의대)
09:40~10:10	자궁체부암 진료권고안	유희석 (아주의대)
10:10~10:40	난소암 진료권고안	김병기 (성균관의대)
10:40~11:10	휴식	

## Part II Optimal therapy, update 좌장 : 이규완, 배덕수

11:10~11:30	IP chemotherapy	김영태 (연세의대)
11:30~11:50	Best surgery in patients with early endometrial cancer	임경택 (제일병원)
11:50~12:00	지명토론	서상수 (국립암센터) 최중섭 (성균관의대)
12:00~12:20	Merck 오찬 심포지움	<b>좌장 : 박종섭</b>
12:20~13:20	점심	이재관 (고려의대)

## Part III Current clinical research issues in gynecologic cancer (I) 좌장 : 이승호, 최호선

13:20~13:40	Optimal end points of recent clinical trials in ovarian cancer	김재원 (서울의대)
13:40~14:00	Quality of life issues in gynecologic cancer research	윤영호 (국립암센터)
14:00~14:10	지명토론	손성경 (충남의대) 김관식 (전북의대)
14:10~14:30	Addition of a targeted agent to first-line therapy in ovarian cancer	김승철 (이화의대)
14:30~14:50	Re-evaluation of consolidation therapy for ovarian cancer	이낙우 (고려의대)
14:50~15:00	지명토론	류기성 (가톨릭의대) 김원규 (고신의대)
15:00~15:30	휴식	

## Current clinical research issues in gynecologic cancer (II) 좌장 : 조영래, 한세준

15:30~15:50	RNAi: its potential clinical applications in gynecologic cancer	박동춘 (가톨릭의대)
15:50~16:10	Perspectives on molecular imaging in cancer	정준기 (서울의대)
16:10~16:20	지명토론	이철민 (인제의대) 김대연 (울산의대)
16:20~16:40	Major progress for high-risk endometrial cancer	이윤순 (경북의대)
16:40~17:00	Hormone therapy in gynecologic cancer survivor	이종민 (경희의대) -오가는 초청
17:00~17:10	지명토론	김종혁 (울산의대) 김석모 (전남의대)
17:10~	정기총회	

# 5th Korea-Japan Gynecologic Cancer Joint Meeting

Date : Nov. 18, 2006

Venue: Seoul Nat'l Univ. Hospital, Clinical Research Institute

08:00~08:50	Registration	
08:50~09:00	Opening remark	
<b>Part 1-1</b>	<b>IP chemotherapy in advanced ovarian cancer</b>	<b>Soon-Beom Kang</b> (Chairman of KGOG, Seoul National Univ.) <b>Kazunori Ochiai</b> (Vice president of JGOG, Jikei Univ.) <b>Hiroyuki Yoshikawa</b> (Tsukuba Univ.) <b>Haw-suk Saw</b> (Korea Univ.) Soo-Young Hur (Cathloic Univ.) Keiichi Fujiwara (Saitama Cancer Center)
09:00~09:20	To be determined (TBD)	
09:20~09:40	TBD	
09:40~09:45	Q&A	
<b>Part 1-2</b>	<b>Novel surgical technique in gynecologic oncology</b>	<b>Yasuhiro Udagawa</b> (Fujita Health Univ.) <b>Woong-sik Ahn</b> (Cathlic Univ.) Young Tae Kim (Yonsei Univ.) Masaaki Ando (Kurashiki Medical Cencer)
09:45~10:05	Robot surgery in gynecologic field	
10:05~10:25	TBD	
10:25~10:30	Q&A	
10:30~11:00	Refreshement	
<b>Part 1-3</b>	<b>Translational research in gynecologic oncology</b>	<b>Noriaki Sakuragi</b> (Hokkaido Univ.) <b>Sun-do Cha</b> (Keimyung Univ.) Chi Heum Cho (Keimyung Univ.) Hidemichi Watari (Hokkaido Univ.)
11:00~11:20	TBD	
11:20~11:40	TBD	
11:40~11:45	Q&A	
	<b>Luncheon symposium (GSK)</b>	<b>Yong-Sang Song</b> (Seoul National Univ.) TBD Garden View
11:45~12:10	TBD	
12:10~13:30	Lunch	
	<b>Workshop: Clinical trials in KGOG, JGOG: past, present &amp; future</b>	
<b>Part 2-1</b>	<b>Past</b>	<b>Naohiko Umesaki</b> (Wakayama Medical Univ.) <b>Hee-suk Ryu</b> (Ajou Univ.) Sang Young Ryu (Korean Cancer Center Hospital) Satoru Sagae (JR Sapporo Railway Hosp.)
13:30~13:50	Korean experience of clear cell carcinoma of ovary	
13:50~14:10	Chemotherapy of endometrial cancer in Japan	
14:10~14:25	Q&A	
<b>Part 2-2</b>	<b>Present</b>	<b>Ikuo Konishi</b> (Shinshu Univ.) <b>Young-tak Kim</b> (Ulsan Univ.) Taek Sang Lee (Seoul Municipal Boramae Hospital) Jae Hoon Kim (Yonsei Univ.) Eiso Kimura (Kosei General Hospital) Toru Sugiyama (Iwate Medical College)
14:25~14:40	KGOG-1001	
14:40~14:55	KGOG-2001	
14:55~15:10	Japan 3016, JGOG-3016?	
15:10~15:25	Japan 3017	
15:25~15:40	Q&A	
<b>Part 2-3</b>	<b>Future</b>	<b>Toshiharu Kamura</b> (Kurume Univ.) <b>Seung-cheol Kim</b> (Ewha Woman's Univ.) Ki Heon Lee (Cheil Hospital) Junzo Kigawa (Tottori Univ.)
15:40~16:00	Germ cell tumor of ovaries	
16:00~16:20	TBD	
16:20~16:30	Q&A	
16:30~16:40	Closing remark	<b>Makoto Yasuda</b> (President of JSGO, Jikei Univ.) TBD

# 해부학 실습에 대한 오래된 기억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산부인과학교실 교수 김관식

사각 건물의 날 선 모서리에  
일상을 마무리하는 후렴의 일광이 노래하고  
세월의 여파는 교정을 감싸고 있다  
목련꽃 만발하던 시절에  
외진 길목의 녹슨 기억이 찾아오면  
불현듯 다가서는 망령을 저어하듯  
침단에선 불안이 나날을 두리번거린다

그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았다  
망자의 희망은 포르말린에 고정되어  
산자들의 기억 속으로 포매되었고  
지난날들은 알맞게 방부되었다  
그의 시간은 오늘에 머물 뿐  
끝내 내일은 다가오지 않는다  
이제 그를 위한 의식을 위해  
선득한 해부도를 준비해야만 한다

그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차지한  
해부실 조그만 공간  
치열한 칼날이  
잘 보존된 그의 이력을 찾아 분주했다  
그의 안식일 오후엔  
차가운 시멘트 테이블 위에서  
눅눅한 눈에 흙갈색 입술을 열어 말하곤 했었다  
이름이 생생했던 어제를 동경했고  
내일의 휴식이 그리워진다고...  
그리고 과거를 들추며 한잔 거나히 부탁해오면  
그의 안식을 위해 피부와 근육을 다듬고  
신경과 혈관의 거미줄 같은 인연을  
유심히 관찰했었다

그리고 나의 쓸개를 확인하고 싶었던  
지나간 하루를 기억한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부하려는 것일까  
어디에 숨어있는 나를 들여다보는 것일까  
언제쯤 평온의 지평이 보이는 것일까  
지금도 쓸개를 확인하고픈 날이면  
선술집 골목이 토해놓은  
질은 바람 속에서  
나는 여전히 어둠을 뒤흔다

## • 등단 경력

- 2006. 6 : 계간 대한문학세계 시부문 신인상
- 2006. 8 : 월간 문예사조 시부문 신인상
- 2006. 8 : 월간 문학21 시부문 신인상



# 학회 회무보고

##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4차 회의

- 일 시 : 2006년 3월 13일(화) 오후 7시
- 장 소 : 학회 사무실
- 참석자 : 강석범, 강순범, 김경태, 김병기, 김석모, 김영탁, 김영태, 김용만, 김재원, 김재훈, 김주영, 김찬주, 류기성, 박상윤, 박 원, 송은섭, 유상영, 유희석, 이재관, 이정원, 장기홍, 조치흠 (이상 22명)

### 1. 인사말 (박상윤)

- 1) 권고안 작성 스케줄 위원 간 재확인
- 2) 4월 전체회의 장소는 '가톨릭의과학연구원 회의실'로 결정

### 2. 자궁경부암 (김찬주)

- 1) 복강경수술은 개복술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명기하기로 함
- 2) Tumor marker (TA-4, CEA)을 포함하기로 논의
- 3) Ia1인 경우의 extrafascial hysterectomy로 명기하기로 함
- 4) Radiation의 dose는 명기하지 않기로 함
- 5) Ib2인 경우 neoadjuvant chemotherapy 추가함
- 6) 림프절 절제술 소견상 common iliac node (+)인 경우는 pelvic / paraaortic node에 포함시킬 것인가는 추후 결정하기로 함. 항암치료에 대한 참고문헌 조사하기로 함

### 3. 자궁체부암 (장기홍)

- 1) Abdominal hysterectomy로 명기된 것을 그냥 hysterectomy로 표시하기로 하였고 이는 여기에 LAVH, VTH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2) Tumor marker 추가하기로 함
- 3) Radiation방법은 명기하되 does는 명기하지 않기로 협의
- 4) Adverse risk factor는 definite하지 않으므로 추후 논의 요망
- 5) Surveillance에 imaging으로 PET/CT 추가하기로 함
- 6) IORT는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병원이 몇 군데 있으나 실제 사용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향후 재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두기로 함
- 7) Clinical trial로 표시된 곳을 삭제하지는 의견이 나왔으나 포괄적인 안으로는 그냥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8) 내시경 수술의 경우는 experienced gynecologist가 한다고 명기하기로 함

### 4. 난소암 (김병기)

- 1) 도식화하여 논의할 사항을 표시함, 빨간색은 2월 회의로 결정된 사항이고 파란색은 이번 회의에 논의 될 사항으로 분류하여 회의를 진행함
- 2) 가능한 2B를 포함시키기로 하였고 일부 추가사항을 발표하였고 NCCN의 내용 중 삭제한 부분은 없었음

### 5. 차기 회의에 대한 논의

- 1) 3월 29일까지 각 팀에서 완성된 draft를 학회로 보내어 모든 회원에게 미리 발송하기로 함
- 2) 4월 회의에서는 debate point 결정하기로 하고 필요 시 voting하기로 함
- 3) 4월 회의는 Delphi method를 이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나왔음
- 4) 방사선종양학회에서 여러분의 전문의를 초빙하여 의견을 듣기로 함
- 5) 각 팀에서 4월 회의에서는 최대한 reference를 추가하여 발표하도록 결정함

## ▶제4차 상임이사회

- 일 시 : 2006년 3월 14일(화) 오후 7시
- 장 소 : 예당
- 참석자 : 강순범, 김경태, 김승조, 김재욱, 남궁성은, 목정은, 문 형, 박상윤, 박찬규, 배덕수, 배동한, 배석년, 서호석, 이규완, 이승호, 이응수, 이준모, 이효표, 조영래, 최호선, 김재원 (이상 21명)

### 1.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 2. 보고사항

- 1) 제4차, 5차 학술위원회 개최 보고함 - 21차 학술대회, 2차 KGOG 워크숍/심포지엄, 학술지 발전 세미나 프로그램 보고
- 1st HPV Academy (GSK): 4월 1일 개최 예정임을 보고함
- 2) 1차 자궁경부암 예방정책 포럼 (MSD): 2005년 12월 5일 (월) 개최함을 보고
- 3) HPV 소위원회 (9쪽) 및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개최 보고
- 4) KGOG 세부운영위원회 개최 보고
- 5) 긴급 확대 보험위원회 개최 보고
- 6) 2006년 3월호 학회지 : 금주 발송 예정임을 보고함  
각 도서관 결호 결본 제작 배포함을 보고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됨을 보고함  
논문 접수 현황 보고함  
'부인중양' 에 의무적으로 논문을 게재해야 하는 초록 제출자 명단 보고
- 7) 2005년 연회비 납부자 (121명) 보고

## ▶제 34차 (2006년 3차) KGOG 세부운영위원회

- 일 시 : 2006년 3월 28일(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조선희텔 Board room
- 참석자 : 강순범, 김경태, 김승철, 김영태, 김재원, 김재훈,

유상영, 유희석, 이기현, 차문석, 허수영, 이택상, 정현훈, 김선희, 김종순, 김인숙(이상 16명)

1. 제33차 (2006년 2차) 세부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2. 보고사항

- 1) KGOG 법인화 관련 건 ⇨ KGOG 고유번호증 나옴, 다른 기관 시스템과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유무 대해 알아보기로 함
- 2) KGOG 홈페이지 개설(2006년 3월 1일) 관련 건 ⇨ 홈페이지 개설 공문을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함, 현재 83명 가입됨
- 3) 제2차 KGOG 워크숍 프로그램 관련 건 ⇨ 현재 진행 중인 KGOG protocol 보고 시 중간분석 결과 또는 등재현황을 발표하기로 하고, 후향적 연구는 연구결과를 8분 정도 발표하기로 하고, 책자를 만들기로 함
- 4) KGOG 연구 간호사 업무 일정표
- 5) KGOG 2001 관련 건 ⇨ 현재 6 case 등재 된상태이며, 이 대목동병원과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각각 1 case씩 등재 예정임, 수술을 한 기관과 CCRT를 시행할 기관이 다를 경우, 프로토콜 참여기관에 한해서는 등재 가능함, 선정기준의 수술력에서 PLND, PAND에 대해서 프로토콜 변경하기로 함
- 6) 후향적 연구 관련 건 ⇨ 난소암 후향적 연구(KGOG 3003, 3004, 3005) Access 프로그램 다시 정리하기로 함
- 7) EORTC Rule for Publication 관련 건 ⇨ Appendix-공저자로 해서 사용하기로 함
- 8) GOG 관련 건
  - ① GOG protocol에 참여하기 위한 구비서류 회신기관 ⇨ 구비서류가 완벽한 기관만 참여 가능하며, 시험참여자는 GOG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서 추가해도 됨
  - ② GOG 219 진행 현황 ⇨ KFDA 승인을 위해 NCI coordinator로부터 자료 받을 예정이며, 준비해서 6월 이후부터 진행하기로 함
- 9) 암정복 과제 제출 관련 건 ⇨ 자궁경부암 일차 선별검사 한 국형 모델 개발을 위한 무작위 전향연구: 자궁경부 세포검사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병행검사, 고위험 자궁경부암의 표준화된 치료지침 개발을 위한 다기관(대한부인종양연구회:KGOG) 공동 임상 연구
- 10) 항암제 권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Gemzar, cisplatin + topotecan 사용빈도에 대해서 각 기관에 정식으로 공문 보내기로 함

3. 토의사항: New Clinical Trials 논의함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5차 회의

- 일 시 : 2006년 4월 10일(월) 오후 7시
- 장 소 : 가톨릭의과학연구원
- 참석자 : 강석범, 강순범, 김경태, 김병기, 김석모, 김승철, 김영탁, 김영태, 김재원, 김재훈, 김주영, 김찬주, 남계현, 류기성, 박상윤, 박 원, 송은섭, 우홍균, 유상영, 유희석, 이재관, 이정원, 장기홍, 허수영 (이상 24명)

1. 경과보고 (박상윤)

- 1) 지난 회의 경과 보고
- 2) 향후 일정 공고
  - 6월: flow sheet revision 및 overview (서술형문장) 그리고 reference 작성
  - 7월: addendum, definition, staging (TNM, FIGO), lymph node dissection의 범위
  - 8월: Peer review
  - 9월: 최종본 작성 및 final revision
  - 11월: 원래 계획상은 10월이었으나 11월에 부인종양학회가 있으므로 이때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을 안으로 고려 중. 금일 5차 회의는 지금까지 권고안을 팀별로 논의한 후 debating points를 작성한 후 전체위원이 모인 자리에서 각 팀별 작성 수준을 통일화하며 논의된 각 팀의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논의하는 데 있음
  - 다음 회의: 5월 9일, 팀별로 flow sheet 작성 및 추가 논의

2. 자궁경부암 (김찬주)

- 1) W/U에서 Stage IB1이하라는 단어 생략. Tumor marker의 종류 (SCC, CEA)를 하단에 명기하기로 함. IVP, or CT/MRI를 IVP, CT/MRI로 수정하기로 함
- 2) Observation하는 경우 RM (-), LVSI(-) and if pt's desire fertility. Ia1 with RM(+) repeat conization, RT (brachytherapy) 추가하기로 함
- 3) IA2 PALND을 para-aortic lymph node sampling으로 수정, RT dose는 생략하기로 함.
- 4) IB2, IIA - neoadjuvant chemotherapy 추가, 약자 통일화 (PLND, PALND, PANS)
- 5) Deep Stromal invasion의 기준/정의(LVSI의 정의 - 병리학회에 질의하기로 함)
- 6) PALND (+)에서 common iliac LN (+)는 voting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 Lymph node dissection의 level을 팀이 정하자 예로 I (pelvic), II (common iliac), III (paraaortic)
- 7) Paraaortic node (+) - chest CT + PET/CT 추가
- 8) CERV-5, pelvic RT+ concurrent cisplatin containing chemotherapy는 platinum-based chemotherapy으로 수정

- 9) surveillance에서 2~4개월을 3~6개월로 통일하도록 함
- 10) IORT - RT로 수정

### 3. 자궁체부암 (장기홍)

- 1) Optional이란 용어는 자궁체부암 및 자궁경부암에서 사용하였으나 난소암에서는 if clinically indicated라고 표현함, 통일화가 요구됨
- 2) Initial W/U에서 CT, MRI, PET/CT, Tumor marker (CA-125, CA-19-9)은 option으로
- 3) 수술명을 TH (VTH, LAVH도 포함하기 위함), LN sampling은 없애고 dissection으로 수정.
- 4) Pelvic LN dissection의 기준 및 개념을 정리할 필요있음
- 5) lymph node dissection은 각 팀별로 더 논의하여 발표하도록 함
- 6) Em ca-4, extrauterine pelvis : vagina, bladder, bowel/rectum, parametrial의 치료로 RT Surgery (hormone therapy brachytherapy)를 추가하기로 voting하여 결정함 (evidence level 추가 요망)
- 7) Em ca-5. Adverse risk factors의 정의? 우리현실에 맞게 자궁체부암 팀이 결정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병리학회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 달 뒤 결정
- 8) Ia G3, vaginal brachytherapy / pelvic RT. 우리 현실상 일부 병원에서는 vaginal brachytherapy가 장비 부재로 어려운 곳이 있어서 그러한 경우는 pelvic RT로 대체 가능하도록 함. 즉, 주를 달아서 vaginal brachytherapy가 feasible하지 않은 곳은 pelvic RT로 대체 가능하다고 기술하도록 함)
- 9) Em ca 6, WART는 optional로 그냥 두기로 함
- 10) Em ca-8, MRI, PET, PET/CT 추가, or를 and/or로 변경하기로 함
- 11) Em ca-9: MRI, PET, PET/CT 추가, surveillance는 2-4개월에서 3-6개월로 수정하기로 함. Tumor markers (CA-125, CA-19-9), vaginal cytology는 every visit으로 수정. abdominal CT/MRI/PET을 abdominal-pelvic으로 수정
- 12) Em ca-10, IORT를 RT로 수정하기로 함
- 13) Sarcoma, optional 정리 요망
- 14) Sarcoma, WART 삭제, CCRT 추가
- 15) Sarcoma 환자의 incompletely staged 인 경우는 새로 정리하여 작성할 것으로 논의.

### 4. 난소암 (김병기)

전체적인 논의 결과는 NCCN의 내용이 대부분이고 minor revision 정도로 의견이 모임.

- 1) Tumor marker의 기술: voting 결과 권고안에는 tumor marker라고 기술하고 하단에 specific markers (CA-125, CA-19-9, CEA) 등 기술

- 2) Comprehensive 의 정의: debates로 규정하고 추후 논의
- 3) W/U에서 MRI, PET/CT 추가
- 4) stage IA/IB, IC에서 CP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함. 즉 Taxane/platinum으로 결정
- 5) Preferred regimen: Paclitaxel 175mg 3hr infusion이 주된 regimen이다. 135mg 3hr infusion은 다음에 논의하여 가능하면 alternative regimen으로 내리자
- 6) Advanced stage에서 clinical CR 이후 Taxane/platinum 3 cycles 추가하는 사항은 voting하여 동의하여 추가하기로 함
- 7) F/U monitoring에서 2년간 2-4개월간 이후 3년은 4-6개월간 하기로 결정하였고 경계성 종양인 경우도 동일하게 하도록 결정
- 8) Rising CA-125: GCIIG의 기준으로 하기로 논의
- 9) Stage II ~ IV with PR Taxane /Platinum 추가에 동의함 (reference 추가 요망)
- 10) Belotecan 추가에 동의
- 11) BEP의 alternative로 EP, VAC 추가

### ▶HPV 소위원회 4차 회의

- 일 시 : 2006년 4월 13일(목) 오후 7시
- 장 소 : 중앙학회 사무국
- 참석자 : 강순범, 김승철, 김영탁, 김재원, 김재훈, 김희숙, 박종섭, 이재관, 정환욱 (이상 9명)

#### 1. 제3차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 2. 보고사항

- 1) HPV 검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문건: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여 발표하기로 함
- 2) HPV 검사에 의사용 홍보 문건: 서술형으로 정리하여 발표하기로 함

#### 3. 토의내용

- 1) HPV 검사에 reliability에 관한 work shop 개최: 6월 24일 가톨릭의대 의과학 연구소에서 개최하기로 함. 부인 종양, 해부병리과, 진단 검사 의학과 교수와 심평원 간부 및 기자 등을 초청 연자로 하며 각 학회에서 추천하는 교수님들을 초청하기로 함.

### ▶제35차 (2006년 4차) KGOG 세부운영위원회

- 일 시 : 2006년 5월 2일(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조선히텔 Board room

- 참석자: 강순범, 김경태, 김승철, 김영태, 김용만, 김재원, 김재훈, 유상영, 유희석, 이종민, 이재관, 조치흠, 허수영, 이택상, 정현훈, 김선희, 김종순, 김인숙 (이상 18명)

1. 제34차 (2006년 3차) 세부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

↳ 우수정 통과

2. 보고사항

- 1) 제2차 KGOG 워크숍 보고 건 ↳ 현황리에 무사히 잘 마침
- 2) 암정보 과제 제출 관련 건 ↳ 유희석, 김영태 교수님께서 각각 제출하심
  - 자궁경부암 일차 선별검사 한국형 모델 개발을 위한 무작위 전향연구: 자궁경부세포검사 및 인유두종바이러스 병행검사
  - 고위험 자궁경부암의 표준화된 치료지침 개발을 위한 다기관 KGOG 공동 임상 연구
- 3) KGOG 연구 간호사 업무 일정표 ↳ 업무일정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보고하기로 함
- 4) KGOG 법인화 관련 건 ↳ 행정비서가 타 학회들의 법인화 유무와 회계 처리에 대해 조사함
- 5) KGOG 2001 ↳ 현재 9 case 등재된 상태이며, 선정기준 부분을 완화하여 참여기관에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신청함
- 6) KGOG 3007 ↳ 기간연장(일주일)하는 공문을 미회신기관에 재발송하기로 함
- 7) IGCS 초록 관련 건 - KGOG 1001, 1003, 1006, 1007, 3003, 3004, 3005
  - ↳ KGOG1001: 이택상, KGOG1003: 김영탁, 이재관, KGOG1006,1007: 이종민, KGOG3003: 유상영, KGOG3004: 이기현, KGOG3005: 김재원, 이재관 담당하여 제출
- 8) 한·일 부인종양 공동회의의 Program 관련 건 ↳ TF team 모임 일정-일시: 2006년 5월 18일 (목) 6시30분, 장소: 학회사무국, 참석자: 강순범, 김경태, 김영태, 김재원, 김재훈, 유상영, 유희석, 이기현, 이종민, 이재관, 허수영, 이택상, 정현훈
- 9) EORTC 관련 건
  - ① EORTC-GCG Meeting 보고 관련 건 ↳ 김재원 교수 presentation함
  - ② EORTC protocol-55994 ↳ 참여여부 공문 보내기로 하고, 참여하는 기관(연구위원님들 위주)에 한해서 프로토콜 번역하기로 함
- 10) GOG 관련 건
  - ① FACT 번역 관련 건
  - ② GOG 218,219 진행 현황 ↳ GOG 218 프로토콜은 3일 더 연장해서 5월 6일까지 회신 받기로 하고, IB자료는 NCI로부터 받는 대로 번역할 예정임, GOG 219 프로토콜은 김재원 교수님께서 번역하고 있으며, IB자료는 각 기관으로 나눠서 번역함

3. 토의사항: New Clinical Trials 논의함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6차 회의

- 일 시: 2006년 5월 9일(화) 오후 7시
- 장 소: 학회 사무실
- 참석자: 강석범, 강순범, 김경태, 김동원, 김병기, 김승철, 김용만, 김인선, 김재원, 김재훈, 김주영, 김찬주, 남계현, 박상윤, 박 원, 송용상, 송은섭, 안희정, 유상영, 유희석, 이재관, 이정원, 이종민, 허수영 (이상 24명)

1. 경과보고 (박상윤)

- 1) 이번 회의는 debating points에 대한 각 팀별 조사 내용을 토의하는 것이며 차기 회의는 일차 완성된 권고안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참고문헌 및 overview를 작성하는 것임을 공고함
- 2) 병리학회 교수님이 3분(김인선, 김동원, 안희정) 참석하셨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차기 회의에도 참석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말함
- 3) 세포병리학회 회장님이신 김인선 교수님이 제안 사항으로 본 권고안 팀에서 병리학회에 대해서 바라는 문의내용 및 의견을 주시면 병리학회에서 논의하여 본 권고안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이에 대해 병리학적인 의문 사항을 list-up해서 자문을 얻도록 하는 데 동의함

2. 자궁경부암 (김승철)

- 1) W/U에서 tumor marker라고 표시하고 아래에 주를 달아서 그 종류를 명시하는 형태로 전권고안에서 통일되도록 함
- 2) W/U에서 routine lab으로 표시하도록 통일하도록 함. Routine lab의 내용은 주를 달아서 서술하도록 함
- 3) PET-CR는 PET or fusion PET으로 기입하도록 동의
- 4) LVSI의 정의는 병리학회에 자문할 예정
- 5) 항암치료의 regimen은 난소암 및 자궁체부암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자궁경부암은 없어서 추후 가능한 regimen을 조사하도록 함

3. 자궁체부암 (유희석)

- 1) 자궁체부암은 2006년 NCCN권고안이 최근 발표됨으로써 그간 논란이 된 debating points에 대한 내용이 많이 해결되게 되었다.
- 2) 구체적으로 2006년 권고안의 변경 사항을 설명함
- 3) adverse side effect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의
- 4) Tumor-directed RT의 정의와 의미가 모호하여 추가로 조사하기로 함(RO의 박원 선생님이 추후 comments하기로 함)
- 5) F/U은 2-4개월 4-6개월로 통일화함

- 6) PSAC는 그냥 serous type으로 하지는 병리와 선생님 의견이 있었음.
- 7) HGUD의 약자를 HGUS로 쓰는 것이 좋다는 의견(+)
- 8) 항암치료약제는 각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regimen을 구상해서 작성하자

4. 난소암 (이정원) - Debate points에 대한 조사내용 및 의견 발표

- 1) 상피성 난소암 W/U에서 tumor marker 중 CA-19-9, CEA, AFP, b-hCG 추가 포함여부 문헌 조사 후 합당한 사항이므로 추가 결정
- 2) Stage I의 primary adjuvant chemotherapy 시 taxane/carboplatin을 taxane/platinum 그리고 CP의 추가 여부. 문헌 고찰상 evidence 없으나 taxane에 대한 maintenance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는 내용을 지적하여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결정.
- 3) CA-125 상승의 기준 결정, GCIG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
- 4) 용어 정의: comprehensive staging, completion staging procedure, complete surgical? 문헌상 정의된 사항을 찾지 못함. 추가로 고찰 후 만일 없다면 우리의 기준을 만들기로 함.
- 5) Advanced stages에서 이차 치료로 CR 후 secondary adjuvant에 Taxane/platinum 추가여부. 문헌고찰 상 찾기 어려웠음, 추가 문헌 고찰이 요구됨.
- 6) Stage II~IV with PR인 경우 Taxane or platinum or Taxane + Platinum 추가 여부 문헌 고찰로 carboplatin과 cisplatin의 치료효과가 유사하다는 증거 있어 수용하기로 함
- 7) Germ cell tumor의 chemotherapy 시 alternative regimen으로 VAC 추가여부, VAC은 그 치료효과가 BEP에 비해 낮으나 BEP의 금기가 있거나 재발한 경우에 사용할 용도로 alternative에 포함하기로 함
- 8) 상피성 난소암 W/U에서 MRI or PET 추가 여부 문헌고찰이 추가로 요망됨
- 9) Primary adjuvant chemotherapy의 Preferred regimen에 Paclitaxel 135 mg/m over 24 hours + Cisplatin 75 mg/m<sup>2</sup>, Docetaxel 60-75 mg/m over 1 hour + carboplatin AUC 5-6 every 3 weeks을 추가 여부. 불참
- 10) 상피성 난소암의 추적관찰에서 2년간 2~4 개월, 3년간 6 개월 마다를 2년간 2~4 개월, 3년간 4~6개월로 변경 여부 문헌고찰상 찾기 어려움, 추가 조사 후 결정하기로 함.
- 11) Acceptable recurrence modalities에 belotecan 추가여부 참고 문헌 제시하여 수용하기로 함

5. 기타

- 1) 전체 권고안의 서체 및 작성 형태 통일: 추후 이정원간사(보)가 정리하도록 함

- 2) 다음 회의 때 병리학회 및 방사선 종양학회 교수님들 참석 요청공문 보내기
- 3) 권고안 작성 시 여러 다른 협회의 이름 참여 및 협조를 얻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요구됨, 성인 고형암 센터와 연계, 두경부암 권고안 작성시의 know-how를 참조하기 위해 혈액종양내과 선생님을 초빙하는 문제를 두고 다각적으로 접촉 시도

▶제36차 (2006년 5차) KGOG 세부운영위원회

- 일 시 : 2006년 5월 29일(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조선히텔 Board room
- 참석자 : 강순범, 김경태, 김병기, 김승철, 김영탁, 김용만, 김재원, 김재훈, 유상영, 유희석, 이종민, 조치흠, 차문석, 이택상, 정현훈, 김선희, 김종순, 김인숙 (이상 18명)

1. 제35차 (2006년 4차) 세부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2. 보고사항

- 1) KGOG 연구 간호사 업무 일정표 ⇨ 업무일정에 대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보고함
- 2) 한·일 부인종양 공동회의의 Program 관련 건 ⇨ TF team meeting을 통해 정해진 Program (가안)을 Kamura 교수님께 보내서 확인받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함
- 3) Authorship 관련 건 ⇨ 후향적 연구는 Protocol chair 결정
  - ① Retrospective study 연구자별 증례 수 순위
  - ② KGOG1001, 1006, 1007, 3003, 3005 authorship
- 4) GOG 218, 219 진행 현황 ⇨ GOG 218 protocol, GOG 219 protocol 및 IB 자료는 모두 번역되었으며, GOG 218 IB 자료는 미 회신 상태임, 식약청 승인신청, 준비에 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로 함
- 5) EORTC 관련 건
  - ① Protocol-55994 참여 회신기관 ⇨ 회신 기간 연장해서 참여기관 더 받기로 함
  - ② Investigator authorization procedure ⇨ 공문으로 작성하여 참여기관에 발송하기로 함
  - ③ 방사선 치료 계획 ⇨ 참여기관의 방사선과와 협의하도록 공문 발송하기로 함
- 6) KGOG 2001 관련 건 ⇨ 현재 10 case 등재된 상태임
- 7) KGOG 3006 참여 회신기관 관련 건 ⇨ 회신 기간 연장해서 참여기관 더 받기로 함
- 8) KGOG 3007 참여 회신기관 관련 건
- 9) KGOG 1002, 3007 예상 피험자 수 관련 ⇨ 최종 예상수대로 등재하되, 등재 건수가 미흡하면 경쟁적 등재로 전환하

기로 함

- 10) KGOG 3003 관련 건- Clear cell ca of ovary의 슬라이드 리뷰 요청 ⇨ 병리학회 김인선 교수님께 공문 발송하기로 함, 8월말까지 슬라이드 리뷰 하신다고 함
- 11) 성인고형암 연구관련 논문 등재(SCI 논문) ⇨ 2006년부터 임상논문만 지급하기로 함,

### 3. 토의사항: New Clinical Trials 논의함

##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7차 회의

- 일 시 : 2006년 6월 12일(월) 오후 7시
- 장 소 : 학회 사무실
- 참석자 : 강석범, 강순범, 김경태, 김동원, 김병기, 김승철, 김영탁, 김용만, 김재원, 김종혁, 김주영, 김찬주, 남계현, 류기성, 박상윤, 박 원, 송은섭, 안희정, 유희석, 이재관, 이정원, 이종민, 조치흠, 허수영 (이상 24명)

### 1. 경과보고 (박상윤)

- 1) 이번 회의는 일차적으로 완성된 flow sheet 및 overview를 토의하는 모임으로 차후 모임에서 addendum 작성으로 최종 권고안이 완성됨
- 2) 권고안의 이름을 KSGOC라고 표기한 팀이 있는데 이 명칭 문제는 향후 결정하기로 하고 현재는 명칭 없이 작성토록 함
- 3) 각 팀의 권고안 작성 팀 명단에 자문에 참여하신 병리 및 방사선 종양학회 선생님들의 이름을 포함하기로 결정

### 2. 자궁경부암 (김찬주)

- 1) 자궁경부암은 2006년 NCCN 권고안이 최근 발표됨으로써 그간 논란이 된 debating points에 대한 내용이 많이 해결 되게 되었다.
- 2) 2006년 안에서는 lymphangiogenesis 삭제됨
- 3) Stage IA에서 radical trachelectomy 추가함
- 4) Bulky IB2 / IIA에서 neoadjuvant chemotherapy 추가함
- 5) Radical trachelectomy의 IB1에서 추가 size는 2cm이하로 논의함
- 6) LVSI: lymphovascular vs. lymphvascular가 서로 의미가 다름을 강조
- 7) Stage Ia1에서 LVSI가 있는 경우의 처치 ⇨ SGO에서는 IB1, FIGO는 1A1으로 취급. 자세한 기술은 overview에 기록하도록 함

### 3. 자궁체부암 (장기홍)

- 1) PET-CT를 fusion PET으로 변경
- 2) W/U에서 cervical cytology로 broad하게 명기

- 3) EMCA-4에서 optional로 hormone therapy 추가하기로 함 (level 2B)
- 4) Adverse risk factors에서 tumor size의 정의에 대해서 논의함 ⇨ 일반적으로 2cm 이상이 의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NCCN에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어 본 권고안에서도 구체적인 정의는 피하기로 함
- 5) Tumor-directed RT: 정의를 방사선 종양학회에서 알려주기로 함
- 6) F/U: 3-6개월 2년간 이후는 6개월 혹은 매년으로 변경
- 7) GOG-LAP2에서 positive result가 나와서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도 본 권고안에서는 NCCN보다 긍정적으로 표기하고자 결정함

### 4. 난소암 (김병기)

- 1) Routine Labs ⇨ laboratory studies로 변경
- 2) 용어 정리 ⇨ Complete surgical staging vs. Comprehensive staging
- 3) W/U에서 Imaging study라 표시하고 아래에 구체적인 항목 표시하기로 통일
- 4) Overview의 암 발생률에 대한 한국 통계는 부인암 등록사업 보다는 중앙암등록사업을 참조하는 것으로 결정
- 5) Overview의 마지막에 disclosure를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특정 company와는 관계가 없다고 명시하기로 함.

### 5. 기타

- 1) 차기 회의는 전체 회의로 가톨릭의대 강남성모 병원에서 하기로 함 (7월 3일 7시)
- 2) 각 팀에서 권고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6월 19일까지 삼성서울병원 이정원 간사 (보)에게 보내서 전체 format을 일정한게 작성하도록 함
- 3) 6월 22일까지 타학회 자문위원(병리, 방사선 종양학회 및 혈액종양학회)에게 권고안을 미리 보내어 7월 3일 회의에서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미리 보내기로 함
- 4) 6월 3일 회의 에서는 고친 부분 및 추가된 reference 부분만 설명하기로 함
- 5) 아주의대 장기홍 교수님께서 수정된 영문 교정을 담당하기로 함

## ▶HPV 진단워크숍

- 일 시 : 2006년 6월 23일(금) 오후 7시
- 장 소 : 가톨릭의과대학연구원
- 참석자 : 강석범, 김부경, 강순범, 우광민, 강신광, 김태엽, 강창석, 한병돈, 권용일, 안웅식, 김경태, 오진경, 이교영, 김승철, 이아원, 김영탁, 박은용, 김영태, 심상덕, 김용만, 이 선, 조 덕, 김재원, 조한별,

김재훈, 김종원, 김한경, 김희숙, 류기성, 박종섭, 서호석, 손진희, 송은섭, 신해림, 엄태현, 이규덕, 이상은, 이유경, 이은희, 이재관, 이종민, 이찬휘, 이택상, 정현훈, 정환욱, 조남훈, 조동희, 조종남, 조치흠, 조현일, 지현숙, 차영주, 채석래, 최호선, 허수영, 홍성란 외 4명 (이상 60명)

### ▶ 제37차 (2006년 6차) KGOG 세부운영위원회

- 일 시 : 2006년 6월 26일(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조선포털 Board room
- 참석자 : 강순범, 권용일, 김경태, 김병기, 김석모, 김승철, 김영태, 김용만, 김재원, 김재훈, 송은섭, 유상영, 유희석, 이기현, 이낙우, 이종민, 이재관, 조치흠, 차문석, 허수영, 이택상, 정현훈, 김선희, 김중순, 김인숙 (이상 25명)

1. 제36차 (2006년 5차) 세부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 2. 보고사항

- 1) 신입 세부운영위원회 위원 소개 및 Subcommittee 배치: 권용일 교수(한림의대강동성심병원) ⇨ Cervix, Vulva, Vagina TSC, 송은섭 교수(인하대병원), 이낙우 교수(고대안산병원) ⇨ Endometrium-GIT TSC
- 2) KGOG 연구 간호사 업무 일정표
- 3) KGOG 현재(2006년 6월) 재정상태 ⇨ 김인숙 행정비서가 2005년 11월1일~2006년 6월 26일(현재)까지의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해 정리 보고함
- 4) KGOG 2001 ⇨ 현재 12 case 등재됨
- 5) KGOG 3006 ⇨ 29개 기관에서 참여의사 밝힘
- 6) KGOG 1002, 3007 제본 견적 관련 건 ⇨ 메드랑과 접촉하여 e-CRF 작업 착수하기로 함, 제본비와 e-CRF 비용까지 예산하여 중외제약에 의뢰하기로 함
- 7) KGOG 공문 발송 대상 기관에 대한 건 ⇨ KGOG 임상연구 참여도에 따라 공문 및 기타서류 직접발송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간접 발송을 결정하기로 함
- 8) GOG 관련 건
  - ① GOG 218, 219 진행 현황
  - ② C&R research 견적 ⇨ 일단은 GOG 218부터 의뢰해서 진행하기로 함
  - ③ GOG 73rd Semi-Annual Meeting 건 ⇨ 김경태, 김용만, 김재훈, 정현훈, 김선희, 김중순
  - ④ Examples of Articles on GOG Trials with Pathologic Review ⇨ 김인선 교수님께 향후 KGOG 차원의 공동연구를 원활히 하기 위한 chief of pathologist 추천 공문 발

송하기로 함

- 9) EORTC 관련 건 ⇨ 회신 기간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함
  - ① Protocol-55994 참여 회신기관
  - ② Investigator authorization procedure, 방사선 치료계획 review 확인 회신 기관
- 10) 후반기 KGOG workshop 관련 건 ⇨ 한·일 부인종양 공동회의로 대체함
- 11) KGOG subcommittee 운영 방안에 대한 제안 건 (이재관 교수) ⇨ 추후 subcommittee 별도 모임 갖기로 함
- 12) ASCO Gyn-part Review (정현훈)
- 13) 성인고형암 연구관련 논문 등재 (SCI 논문) ⇨ 이종민 교수님께 30만원 지급하기로 함
- 14) 재발성 난소암에 대한 Gemcitabine의 요양급여인정에 관한 요청 건 ⇨ 다른 기관의 다학제에 대해 이택상 선생님께 서 알아보기로 함

3. 토의사항: New Clinical Trials 논의함

### ▶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8차 회의

- 일 시 : 2006년 7월 3일(월) 오후 7시
- 장 소 : 가톨릭의과연구소 1003호
- 참석자 : 강순범, 김경태, 김병기, 김석기, 김석모, 김승철, 김영탁, 김영태, 김용만, 김인선, 김재원, 김재훈, 김종혁, 김주영, 김찬주, 김훈교, 남계현, 류기성, 박상윤, 박 원, 박희숙, 배덕수, 송은섭, 유상영, 유중우, 유희석, 이기현, 이정원, 이종민, 장기흠, 정승은, 조치흠, 최혁재, 허수영, 홍성란 (이상 35명)

#### 1. 개회사 (강순범)

회의에 앞서 본 부인종양 진료권고안 작성에 노고가 크신 여러 위원장 및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타학회에서 도움을 주시러 참석하여 여러 자문위원님들(방사선 중앙학과: 박원, 김주영, 우홍균, 병리과: 김인선, 김동원, 안희정, 유중우, 홍성란, 핵의학과: 김석기, 영상의학과: 최혁재, 정승은, 암학회: 김훈교, 박희숙)께 감사 드린다는 인사말을 전함

#### 2. 경과 보고 (김경태)

지금까지 진행된 7차 회의까지의 진행과정을 요약 발표하여 주셨고 이번 모임은 전반적으로 완성된 권고안을 다른 분야 권고안 팀 위원 및 자문 위원들에게 발표하고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임을 설명함

#### 3. 자궁경부암 (김찬주)

- 1) Workup에서 IVP 추가하기로 함
- 2) Imaging studies에서 /를 ,로 표기하기로 함
- 3) CXCA-2에서 NAC를 추가하였는데 evidence category를 추가하기로 함
- 4) CXCA-4에서 CT/MRI/PET으로 명기하기로 함
- 5) CXCA-8에서 optional studies에서 시행기준을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6) CXCA-A에서 carboplatin/topotecan, carboplatin/gemcitabine의 사용은 evidence가 약하므로 voting을 통하여 제외하기로 결정함
- 7) 자궁경부암의 histological subtype의 기준은 명기 되지 않았는데 rare subtype 즉 small cell, clear cell 등을 나누어 명기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이는 다음 회의에게 논의하기로 함

#### 4. 자궁체부암 (장기홍)

- 1) Initial evaluation에서 pelvis MRI 와 Abdomen CT를 동시에 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다음 속제로 남김
- 2) PET/fusion-PET으로 지난 회의에서 통일화 하였는데 단 순히 PET으로 정리하기로 결정함
- 3)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imaging studies라는 용어로 통일하 자는 의견이 있어 동의함
- 4) 자궁내막암의 imaging study로는 CT보다 MRI가 유리하 므로 initial W/U에 MRI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임상적 가 선택할 수 있게 자율성을 주자는 의견이 많아 그냥 두기 로 함
- 5) UTCA-5의 tumor size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2cm 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병리학회 김인선 교수님이 병 리학 교과서에도 size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말씀 을 하셨음, 결국 voting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 기로 결정함
- 6) Tumor directed RT의 정의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 하였으나 좀 더 확인하여 보자는 의견이 많아 추후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의 견을 주기로 함
- 7) 자궁 육종에 대한 classification은 있으나 자궁내막암에 대 한 분류는 없어 병리학회에 자문을 구하여 WHO분류의 내 용을 요약하여 제공받기로 함

#### 5. 난소암 (이정원)

- 1) OVCA-5에서 tumor marker check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 every visit if initially elevated라는 문장을 빼기로 함
- 2) OVCA-7의 no invasive implant를 병리과 김인선 교수님 의 제안으로 no implants or noninvasive implants로 바 꾸기로 함
- 3) OVCA-11에서 x-ray를 imaging studies로 수정하기로 함

- 4) Ovarian stromal tumor를 sex cord stromal tumor로 정 정하기로 함

#### 6. 맺음말 (박상윤)

- 1) 이번 회의로 정리된 권고안을 가지고 NCCN에 차후 자문하 기로 함
- 2) 회의에서 나온 타 학회에 대한 자문 사항을 전달하여 의견 을 듣기로 함

#### ▶ 제6차 학술위원회

- 일 시 : 2006년 7월 11일(화) 오후 7시
- 장 소 : 로씨니
- 참석자 : 강순범, 김병기, 김승철, 김영탁, 김영태, 박종섭, 박충학, 유희석, 이규완, 이낙우, 이윤순, 김재원 (이상 12명)

#### 1. 2006년 제 5차 학술위원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 2. 보고사항

- 1)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4~8차 회의 보고함
- 2) HPV 소위원회 '자궁경부암 진단 워크숍, 2006.6.23' 개최 보고함  
- 8월 24일 HPV 소위원회 모임 갖고 향후 계획 논의기로 함
- 3) 제2차 자궁경부암 예방 정책 포럼, 2006.7.26 예정임을 보 고함  
- 부인암 이해의 달 또는 자궁경부암 검진의 달(가칭) 등 대국 민 홍보 방안 제안  
- 부인암 나타내는 ribbon 제안

#### 3. 논의사항

- 1) 12차 추계 심포지엄 (2006. 11. 17) 프로그램 안  
- 오전 프로그램 안 승인, 오후 연제에 적합한 연자 추천됨
- 2) 진료권고안 관련  
- 9월 18일(월)에 관련 제 학회 및 정부관계자가 참석하는 '부 인암 진료권고안 개발 합의 회의(Consensus conf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gynecologic cancer treatment guidelines)를 개최하기로 함
- 3) 5차 한일부인종양합동회의(2006. 11. 18) 프로그램 안  
- 승인  
- 오후 워크숍에서는 동시통역 추진기로 함  
- 시간표를 조절하여 토론 시간을 늘리기로 함  
- 오후 session의 공개 여부 논의함
- 4) 2007년 22차 학술대회 외국연자 초청 건 - breast ca 연구 자 초청 추진기로 함
- 5) 3차 AOGIN (2008년) 한국 유치 방안 논의

6) 학술대회 회차와 심포지엄 회차를 합치는 방안을 제안함 - 추후 논의하기로 함

▶제2차 자궁경부암 예방정책 포럼

- 일 시 : 2006년 7월 29일 (수) 3~6시간
-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 참석자 : 강순범, 김경태, 김승조, 김영탁, 김재원, 김희숙, 남주현, 류기성, 박종섭, 이규완, 유희석 (이상 11명)

▶제38차 (2006년 7차) KGOG 세부운영위원회

- 일 시 : 2006년 7월 31일(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조선포텔 Board room
- 참석자 : 강순범, 권용일, 김승철, 김영탁, 김용만, 김재원, 김재훈, 남병호, 송은섭, 유상영, 유희석, 이기현, 이종민, 조치흠, 허수영, 이택상, 정현훈, 김선희, 김종순 (이상 19명)

1. 제37차 (2006년 6차) 세부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2. 보고사항

- 1) 국립암센터 남병호 박사님 소개 및 강의 ⇨ JCOG에 대해서 발표, 새로운 세부위원으로 가입
- 2) KGOG 조직도 (Subcommittee) 수정 관련 ⇨ 권용일 교수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 Cervix, Vulva, Vagina TSC, 송은섭 교수(인하대병원), 이낙우 교수(고대안산병원) ⇨ Endometrium-GTT TSC로 배정함, 추가의견 있을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하기로 함
- 3) KGOG 연구 간호사 업무 일정표
- 4) 다기관 진행 현황 관련 건
  - ① KGOG 1002, 2001, 3007 진행 현황 ⇨ 현재 KGOG 1002, 3007은 각 기관에서 심사 중에 있는 상태이며, KGOG 2001은 15 case 등재됨
  - ② KGOG 2001 violation list ⇨ major와 minor로 분류함, SAE는 해당 기관 IRB 심사 후 결과와 함께 다기관에 발송하기로 함, violation에 대해서 남병호 박사님께서 다시 review 해주시기로 함
- 5) KGOG2003: 7개 기관, KGOG3009: 21개 기관, KGOG3010: 23개 기관에서 참여의사 밝힘, 더 이상 회신 받지 않기로 함, 추후에는 선착순으로 회신 받기로 함
- 6) KGOG 3006 예상 피험자 수 관련 건 ⇨ 예상 피험자 수 55명으로 25개 참여기관에 배정함

7) IGCS 초록 통보 결과 관련 건 ⇨ 모두 Poster로 결과 통보 받음 (KGOG 1001, 1003, 1006, 1007, 3003, 3004, 3005)

8) GOG 관련 건

- ① GOG 73rd Semi Annual Meeting ⇨ 김용만, 정현훈 발표함
- ② GOG 218, 219 진행 현황 ⇨ GOG 219는 C&R Research를 통해 KFDA에 제출할 예정이며, GMP도 받을 예정임
- ③ KGOG에서 참여할 GOG protocol ⇨ GOG204, GOG209, GOG233 protocol에 대해 논의함, GOG233은 진행하기로 함

9) Gemcitabine 관련 건 ⇨ 각 기관에서 다학제 연구위원회 통해 심평원에 제출하기로 함

3. 토의사항: New Clinical Trials 논의함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9차 회의

- 일 시 : 2006년 8월 21일(월) 오후 7시
- 장 소 : 부인종양학회 사무국
- 참석자 : 강순범, 김경태, 김병기, 김영탁, 김재원, 김찬주, 박상윤, 유희석, 이정원, 장기홍 (이상 10명)

1. 각 권고안별 최종 정리된 내용 요약 발표

2. 진료권고안의 전체적인 포맷 및 디자인 결정

3. 한글판, 영문판, 일반인용, 전문가용으로 나누어 출판

4. 진료권고안 총괄본 및 요약본 제작

5. 각 권고안별 최종 정리된 내용 요약 발표

- 1) 자궁경부암 (김찬주): 용어 통일 요구 (para-aortic node sampling), IA1의 RM(+)인 경우 repeat cone, RT if inoperable, hysterectomy, or trachelectomy를 추가하기로 함.
- 2) 자궁체부암 (장기홍): 특히 사항 없음
- 3) 난소암 (이정원): 김인선 교수님이 제공하신 WHO 병리 분류의 출처를 문의하기로 함

6. 진료권고안의 전체적인 포맷 및 디자인 결정

- 1) 한 권으로 만든다
- 2) 책자는 A4 사이즈, 색상은 blue로 하기로 함
- 3) 목차
  - ① 인사말
  - ② 권고안 제정 과정 기술
  - ③ level of evidence 서술

- ④ 권고안 작성 팀 위원 기록
- 4) 3개 권고안에 모두 기술하지 말고 앞쪽으로 빼서 한 번에 기록하기로 함
- 5) 다른 학회의 회장 및 사무총장, 본 권고안 작성에 참여한 분을 한꺼번에 기록하기로 함
- 6) 3가지 권고안은 다른 색상으로 구별하여 제작하기로 함
  - ① Overview는 한글로 번역하여 작성하며 각 팀별로 분담하여 작성하기로 함
  - ② 참고문헌은 전체 분량을 고려하여 최소 크기로 하기로 함.
- 7) 한글판, 영문판, 일반인용, 전문가용으로 나누어 출판할 내용
  - ① Flow sheet는 전문가용(부인중앙전문의대상)은 영어로 작성하며 full version으로, 일반의사용(부인중앙전문의가 아닌 일반 산부인과 의사, 타과 전문의 및 일반의)은 한글로 작성하고 요약된 flow 작성
  - ② 일반의사를 위한 요약 flow sheet는 일차 치료 1장 그리고 필요 시 surveillance 와 recurrence 1장으로 작성하기로 함(각 권고안당 전체 2장 이내로)
- 8) 진료권고안 총괄본 및 요약본 제작
  - ① Title은 '부인암 진료권고안(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gynecological cancers)'으로 결정함
  - ② 요약본은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총괄본에 요약된 flow sheet를 첨가하여 만들기로 함
  - ③ 주최자는 KSGOC 및 성인고형암 치료임상연구센터로 하기로 함
  - ④ Sponsorship으로 KGOG 및 KGSO를 책자 안에 기술하기로 함
  - ⑤ Revise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
- 7. 차기회의공고: 9월 4일에 모여서 18일 도출회의 이전에 최종 정리된 권고안(번역한 overview, 요약된 flow sheet 등)을 팀장만 참석하여 확인하기로 함

## ▶제2차 연구위원회

- 일 시 : 2006년 8월 23일(수) 오후 7시
- 장 소 : 조선포털 Board room
- 참석자 : 강순범, 김경태, 김원규, 배덕수, 서호석, 안웅식, 이규완, 한세준, 김재원, 김재훈, 김선희, 김종순, 김인숙 (이상 13명)

### 1. 보고사항

- 1) KGOG 조직도 (Subcommittee) 수정 관련 건
- 2) KGOG 홈페이지 및 전자 증례기록지 구축: <http://www.kgog.org>
- 3) 신입 세부운영위원, 연구간호사 및 행정비서
  - 2005년 3월: 차문석(동아대학교병원), 허수영(성가병원)

- 2006년 6월: 권용일(강동성심병원), 이낙우(고대안산병원), 송은섭 (인하대학교병원)
- 2006년 7월: 남병호 박사(국립암센터)
- 2005년 8월: 신입 연구간호사-김중순,
- 2005년 4월: 행정비서-김인숙
- 4) KGOG 주요 행사
  - ① KGOG 로고 및 현판 제작 (2005년 10월)
  - ② KGOG OPEN HOUSE (2005년 11월 10일)
  - ③ KGOG Workshop 및 Symposium:
    - 제1차 : 05년 8월 20일, 서울 리즈칼튼 호텔,
    - 제2차 : 06년 4월 20일, 경주 힐튼 호텔
- 5) 국제 공동 연구 모임 참석
  - ① AGOG
    - 일시: 2005년 11월 15~16일, 장소: 대만
    - 참석자: 김재훈, 허수영
  - ② GOG
    - 71st semi-annual meeting
      - 일시: 2005년 7월 7~10일, 장소: 볼티모어
      - 참석자: 김재원
    - 72nd semi-annual meeting
      - 일시: 06년 1월 19 ~ 21일, 장소: 샌디에고
      - 참석자: 강순범, 권용일, 김용만, 김재원, 김재훈, 유상영, 정현훈
    - 73rd semi-annual meeting
      - 일시: 2006년 7월 20~23일, 장소: 워싱턴
      - 참석자: 김경태, 김용만, 김재훈, 정현훈, 김선희, 김종순
  - ③ GCIG
    - 2005 Annual Spring Meeting
      - 일시: 2005년 5월 12~13일,
      - 장소: 플로리다, 참석자: 김경태
    - Annual Fall Meeting
      - 일시: 2005년 11월 3~4일, 장소: 프랑스 파리
      - 참석자: 김경태, 조치흠, 이택상
  - ④ EORTC-GCG
    - Annual Spring Meeting
      - 일시: 06년 4월 27~29일, 장소: 그단스크, 폴란드
      - 참석자: 김재원
- 6) KGOG 임상연구
  - ① Closed Study: KGOG 1001, 1005, 1006, 1007, 3003, 3004, 3005
  - ② Activated Study: KGOG 2001, 1002, 3007, 3010
  - ③ Will be open: KGOG 1008, 1009, 3006, 3008, 3009
- 7) KGOG 연구업적
  - KGOG 1001, 1003, 1006, 1007, 3003, 3004, 3005: IGCS poster accepted
  - KGOG 1005: IJGC in press
- 8) Global Study

- GOG218, GOG219 - EORTC55994
- 9) KGOG 회계 내역
- 10) KGOG Authorship 기준

### 3. 토의사항

- 1) 한·일 부인종양 공동회의 Program (가안) 관련 건 ⇨ 특별한 의견 없음
- 2) 향후 KGOG 운영방안
  - ① 연구간호사 총원 건 ⇨ 시급히 확충되어야 함
  - ② 기금 확충 건
  - ③ 연구위원들의 참여 활성화(세부운영위원회에 참석 요망됨)

### ▶ HPV 소위원회 5차 회의

- 일 시 : 2006년 8월 24일(목) 오후 7시
- 장 소 : 종양학회 사무국
- 참석자 : 강석범, 강순범, 김승철, 김영탁, 김영태, 김재원, 김재훈, 김종원, 김희숙, 박종섭, 이재관, 정현욱, 조남훈 (이상 13명)

#### 1. 제4차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 2. 보고사항 - 자궁경부암 HPV 진단 워크숍

### 3. 토의내용

- 1) 일반인, 개원의들을 위한 쉽고 간결한 HPV(감염)에 대한 설명: 일반인용은 지구 수정함, 개원의용은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기로 함
- 2) HPV검사 종류에 대한 가이드라인 표준화: 국가 기관에 공인받지 못한 검사들은 사용할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 (KFDA 통과 검사만 사용하기로 함)
- 3) 보험 급여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 제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부분적으로 수정함
- 4) QC문제에 대한 학회 차원의 입장정리: 병리학회, 진단검사 의학회와 차후 의논하여 정리하기로 함

### ▶ 제39차 (2006년 8차) KGOG 세부운영위원회

- 일 시 : 2006년 8월 28일(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조선포텔 Board room
- 참석자 : 강순범, 권용일, 김경태, 김승철, 김인선, 김주영, 김재원, 김재훈, 남병호, 유상영, 이낙우, 이종민, 차문석, 정현훈, 김선희, 김종순, 김인숙 (이상 17명)

#### 1. 제 38차 (2006년 7차) 세부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통과

### 2. 보고사항

- 1) 김재욱 명예회장님 격려 말씀
- 2) 산부인과 병리연구회 회장님 소개 및 인사말씀 ⇨ 고려의대 김인선 교수 Pathology Chief 수락
- 3) Radiation oncology active member 영입 ⇨ 국립암센터 김주영 박사
- 4) KGOG 조직도 수정 관련 건 ⇨ Chief of Pathology 및 Pathology Committee 13분 새로 임명함
- 5) 제 4차 연구위원회 모임 관련 건 ⇨ 2006년 8월 23일 오후 7시, 조선포텔 Board room에서 개최함,
- 6) KGOG 연구 간호사 업무 일정표
- 7) KGOG 임상연구 진행 현황
  - ① KGOG Protocol 목록표 ⇨ 각각의 프로토콜별로 참여병원을 표를 정리하여 시험책임자분들께 발송
  - ② KGOG 2001 violation list ⇨ 월별로 정리하여 프로토콜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담당자에게 발송
  - ③ KGOG 1002, 2001, 3007 진행 현황 ⇨ KGOG 1002, 3007은 9월말까지 (접수한 달로부터 3개월 후)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변경 프로토콜 확정하기로 함, KGOG 2001은 현재 16명 등재 됨
  - ④ KGOG 1002,3007 보완내용 ⇨ KGOG 1002 보완내용은 cervix subcommittee의 권용일, 김승철, 김영태, 김영탁, 이종민 교수님께서 상의하여 다듬기로 함, KGOG 3007은 시험책임자이신 김승철 교수님께서 정리하시기로 함
  - ⑤ KGOG 3003-Clear Cell Ca 결과 ⇨ 김인선 교수님께서 결과에 대한 발표함. 그 결과에 따라 KGOG 3003의 authorship을 바꾸기로 함
  - ⑥ Translational Study-KGOG 2003 ⇨ IRB 심의는 참여하기로 한 7개 기관에 각각 제출하여 받기로 함
- 8) GOG Protocol 관련 건
  - ① GOG 218, GOG 219: GMP Certification, C&R research 제출서류, GOG 218은 일단 KGOG에서 진행해보고 미흡할 경우 대행업체에 의뢰하기로 하고, GOG 219은 C&R research에 의뢰한 상태임
  - ② GOG 233 ⇨ 프로토콜 review함, 논의 후 차차 진행시키기로 함
- 9) EORTC 55994 관련 건 ⇨ 시급히 진행하기로 함, 시험책임자 initial meeting을 2006년 9월 18일(월),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개최하기로 함
- 10) SCI 논문 등재 ⇨ 이종민 교수

### 3. 토의사항: New Clinical Trials 논의함

##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10차 회의

- 일 시 : 2006년 9월 4일(월) 오후 7시
- 장 소 : 부인종양학회 사무국
- 참석자 : 강순범, 김경태, 김병기, 김영탁, 김재원, 김찬주, 박상윤, 이정원, 장기홍 (이상 10명)

1. 각 권고안별 최종 정리된 내용 요약 발표(전체 flow sheet, 한글 및 영문 요약본): 난소암 (이정원), 체부암 (장기홍), 자궁경부암 (김찬주) 발표함
2. Level of evidence를 기록할 때 NCCN의 결정사항은 2B 그대로 표기하도록 하고 우리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2B-K로 표기하기로 결정함
3. 9월 18일 도출회의에서는 각 팀 별로 전체 flow sheet, 한글 및 영문 요약본을 20분 내로 발표하기로 함
4. 도출회의까지 전체권고안 정리 계획
  - 1) 9월 6일 수요일까지 각 팀에서 최종 정리된 권고안(전체 flow sheet, 한글 및 영문 요약본)을 SMC 간사보 이정원에게 보내어 전체 형식을 통일화하도록 함
  - 2) 9월 8일 금요일까지 금일 모인 대표 위원에게 전체 권고안을 보내어 감수를 받도록 함
  - 3) 대표 위원은 주말까지 확인 후 월요일(9월 11일까지) 다시 SMC 간사보 이정원에게 보내어 전체를 취합하도록 하고 이후 9월 12일 날 학회로 보내어 도출회의를 위한 인쇄재자를 만들도록 함
5. 각 권고안의 overview는 한글로 작성하여 9월 18일 도출회의 후 대표위원들이 만나서 토의를 하도록 함
6. 최종 권고안 공표는 11월 17일 부인종양학회에서 하기로 함

## ▶부인암 진료권고안 개발을 위한 합의 도출회의

- 일 시 : 2006년 9월 18일(월) 오후 5시
- 장 소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 연구소 강당
- 참석자 : 강석범, 강순범, 고석봉, 권의경, 권희정, 김경태, 김기환, 김동원, 김병기, 김승철, 김영탁, 김재원, 김재훈, 김찬주, 김태진, 김학순, 김훈고, 김흥태, 김희숙, 남계현, 남서윤, 남주현, 류기성, 목정은, 박상윤, 박세진, 박 원, 박정열, 박찬용, 박총학, 박희숙, 서동수, 설해실, 송은섭, 송재윤, 송홍섭, 신성수, 신정환, 안진희, 안희정, 우춘미, 유희석, 이근호, 이기현, 이승호, 이용석, 이인호, 이정원,

이종민, 이현주, 임경태, 장기홍, 장석준, 전운천, 정민형, 정인국, 정현훈, 조영래, 주 응, 차동수, 최영준, 최혁재, 한경희, 홍순철, 홍원기 (이상 65명)

### 1. 각 권고안 내용 발표

#### 1. 자궁경부암 (김찬주)

- 1) W/U에서cystoscopy, sigmoidoscopy를 routine으로 하자는 의견 있었음.
- 2) Neoadjuvant chemotherapy가 자궁경부암에서 evidence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차후추가적인 문헌 고찰을 하기로 함.

#### 2. 자궁체부암 (장기홍)

- 1) 병기 2인 경우 반드시 RH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TH도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는 RH가 trend라는 의견이 있어 차후 추가논의 필요할 것으로 결정됨.
- 2) 불완전 병기 결정된 IA, G1-2에서 imaging study를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 3) lymph node dissection보다는 lymphadenectomy가 더 좋다는 의견이 있었음.

#### 3. 난소암 (이정원)

- 1) OVCA-1에서 clinical stage 1A or IC에서 clinical이라는 단어는 생략하자 혹은 수술 당시라는 말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음.
- 2) OVCA-3에서 stage II-IV의 standard therapy로 taxane/carbo보다는 taxane/platinum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었음.
- 3) OVCA-4에서 taxane/platinum consolidation은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4) Recurrence therapy라는 용어보다는 salvage therapy(구제항암요법)라는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5) OVCA-H에서 leuprolide는 상품명이므로 GnRH-agonist라고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4. 병리학회 (안희정)

- 1) 이전에 본 학회에 제공한 병리 분류 이외에 추가된 내용을 발표하여 본 학회에서 추가 논의를 걸쳐 변경여부를 결정하라는 의견 주심.
- 2) Microinvasive의 정의를 SGO기준으로 병리학회는 따르고 발표하였는데 본 학회는 FIGO 기준이 더 practical 하다는 의견 있어 차후 병리학회에서 추가토론 후 의견 주기로 함.
- 3) 중앙크기를 측정할 때 임상적 크기측정은 병리과 측정과 다르다는 의견에 구체적인 합의는 보지 못하였으나 아직 정확한 기준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또한 자궁 절개 방식에 대한 논의도 있었음.

## 5. 질의 응답

- 1) 각 팀별로 F/U기간이 다른데 통일화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질문에 암 별로 그 추적관찰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수정하지 않기로 함.
- 2) Cervical cancer의 2cm이하에서 radical trachelectomy에 대한 효용성 질문에 문헌 고찰 상 권고안에 포함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의견 있었음.
- 3) 수술 후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각 병원마다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통일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질문에 방사선 종양학과 박원 교수님께서 아직 학회 차원에서 통일된 사항은 없다고 의견 주심.
- 4) High-dose chemotherapy with PBSCT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에 김희숙 교수님께서 유방암의 경우 phase 2에서 효과가 없어 phase 3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함. 그러나 난소암의 경우는 아직 그 evidence가 없다고 발표함.
- 5) 난소암에서 gemcitabine의 보합에 관한 질문에 아직 식약청 허가가 없다고 말함. 그러나 강력한 evidence가 있다면 다각적위원회에 건의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함.

## 6. 총괄회의

- 1) 9월 14일에 온 NCCN의 답장 메일에 대해 논의함.
- 2) NCCN에서는 권고안의 수정 및 변형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한글로만 원문 그대로 번역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에 따른 copyright permission fee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들의 논의를 통하여 NCCN에 답장을 보내어 변형이 불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일 안 된다고 하면 NCCN과는 다른 권고안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NCCN과의 연계를 끊자고 의견을 모음.

## ▶ 제 4차 상임이사회

- 일 시 : 2006년 9월 19일(화) 오후 7시
- 장 소 : 예당
- 참석자 : 강순범, 김경태, 김승조, 김재욱, 남궁성은, 남주현, 목정은, 문 형, 배동한, 배석년, 서호석, 이규완, 이승호, 이효표, 최호선, 김재원 (이상 16명)

### 1. 제 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됨

### 2. 보고사항

- 1) 21차 학술대회, 2차 KGOG 워크샵/심포지움, 학술지 발전 세미나 개최
- 2) 제 6차 학술위원회,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5차~10차, HPV 소위원회 4~5차 개최  
HPV 진단 워크샵 개최, 2차 자궁경부암 예방정책포럼 개최  
부인암 진료 권고안 개발을 위한 합의 도출 회의 개최  
12차 심포지움/제5차 한일부인종양합동회의 프로그램 보고함

- 3) 34~39차 KGOG 세부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회 개최
- 4) 2006년 3, 6, 9월호 발간함, 논문 접수 현황 보고  
부인종양 학회지에 의무적으로 논문을 게재해야 하는 초록 제출자 명단  
논문 이중 게재에 대한 학회 입장 공지함  
학회지 해외 주요 기관에 발송 예정, online 논문접수/심사 시스템 영문화 추진 중

## 3. 논의사항

- 1) 12차 심포지움/제 5차 한일부인종양합동회의 진행 관련 협소한 장소, 일본 측 좌장과의 연배 등을 고려하기로 함
- 2) 22차 학술대회/13차 심포지움 장소, 날짜 결정 및 유방암 관련 연자 초청  
학술대회는 잠정적으로 4월 20일(금) 부산, 심포지움은 11월 23일(금) 서울에서 개최  
(산부학회 학술대회와 겹치지 않도록 종양학회 학술대회는 봄에 개최하는 것이 전통)  
학술대회에 유럽 쪽 유방암 관련 연자 초청 추진키로 함
- 3) 향후 KGOG 운영: 학회와 KGOG 분리 여부를 포함한 KGOG 운영 방안에 대해 TFT를 구성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명예회장단 회의 및 상임이사회의에서 추후 논의하여 결정키로 함.

## 회원 동정

· 이상현, 송지현, 이용석, 김동규, 이해남, 권선영, 남은지, 최영준, 황지영 님이 신입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 가톨릭의대 안응식 교수가 대한광역학회 학술대회를 8월 26일 개최하였으며 차기 회장으로 재선되었습니다.

## 2007년 주요 학회 일정

일 자	학 회 명	장 소	홈페이지
11.29-12.2	13th ESSO	Venice	www.fecs.be
11.23-24	41st 日本婦人科腫瘍學會	Osaka	www.jsgo.gr.jp
1.11-14	GOG Business Meeting	San Diego	www.gog.org
2.7-10	International Symposium on Radical Hysterectomy	Kyoto	www.macc.jp/RadicalHysterectomy/
3.2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dvanced Ovarian Cancer	Valencia	
3.25-28	11th International Forum on Ovarian Cancer	Lake Como - Italy	
3.24-28	SGO Annual Meeting on Women's Cancer	San Diego	www.sgo.org
4.14-18	AACR: 98th Annual Meeting	Los Angeles	Los Angeles
4.13-17	59th JSOG	Kyoto	www.jsog.or.jp
4월	22차 대한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	미정	ksgoc.or.kr
5.11-13	1st Ovarian Cancer Action European International Conference	London	
6.2-5	ASCO: 2007 Annual Meeting	Chicago	www.asco.org
6월	GCIG Spring Meeting	Chicago	ctep.cancer.gov/resources/gcig
7.19-22	GOG Business Meeting	Philadelphia	www.gog.org
미정	6th Japan-Korea Joint Meeting	Tokyo	
6.29-7.1	42nd 日本婦人科腫瘍學會	Tokyo	www.jsgo.gr.jp
9.21-25	20th AFOG	Tokyo	www.ics-inc.co.jp/aocog2007/
10.27-28	GCIG Fall Meeting	Berlin	ctep.cancer.gov/resources/gcig
10.28-11.1	15th ESGO	Berlin	www.esgo.org
11월	13차 대한부인종양학회 심포지엄	서울	ksgoc.or.kr
11.11-14	14차 World Congress on GTD	Fukuoka	www.macc.jp/14isstd/

## 編輯後記

年初에 發刊된 소식지에 “危機는 또 다른 幾回”라는 文句를 인용하여 우리 學會가 처한 狀況打開를 祈願했었습니다. 그러나 소식지를 編輯하며 되돌아본 學會의 業績은 그러한 걱정이 杞憂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어려운 診療與件을 打開하려는 努力의 一環으로 國會에서 ‘여성 건강권 수호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保健福祉部와 審判院 關係者들과 緊密한 關係를 유지하는 등 學會가 能動的으로 對處하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效果가 微微하지만 머지않은 將來에 그 效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最近 婦人腫瘍 分野의 話頭는 단연 世界 最初로 開發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HPV Vaccin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學會는 그 基盤 造成을 위한 事業으로 國會에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포럼”과 “HPV 진단 workshop”을 성공리에 開催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機關에서는 國內 臨床研究를 성공리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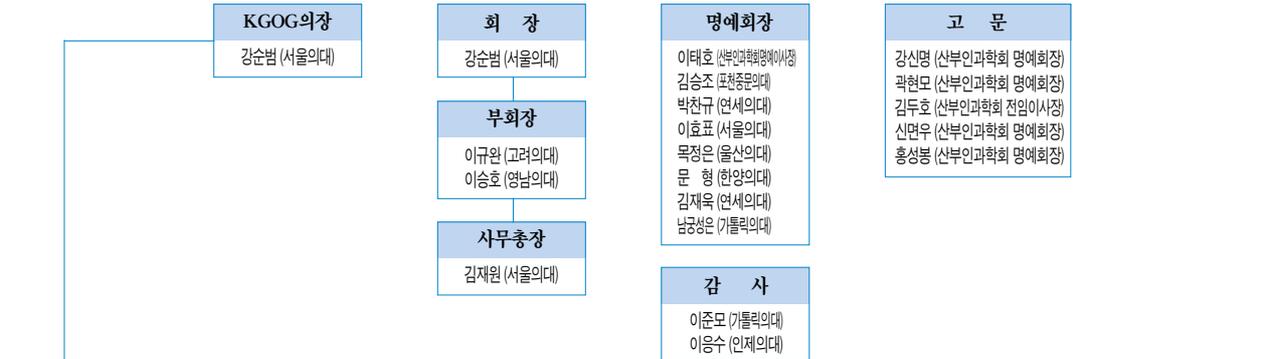
해마다 강조하여 말씀드렸지만, 우리 學會의 젊은 棟梁들이 ASCO, SGO, ASCCP, AACR, GOG, EORTC-GOG 등 수많은 海外 優秀 學會를 參觀하고 또 研究業績을 발표하는 등 世界化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世界化는 國內의 內實化로 이어져서, 지난 일 년 간 學會의 가장 큰 業績인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및 난소암 진료권고안” 등을 完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會員들이 衆智를 모아서 우리나라 婦人癌 特性에 가장 알맞은 진료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國內의인 것이 가장 世界的이라고 합니다. 우리 固有의 진료권고안으로 診療하게 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상의 일들을 主管하여 卓越한 業績을 이룩한 강순범 會長님께 讚辭를 보냅니다.

소식지 소위원장 유희석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조직도



연구위원회	학술위원회	기획위원회	편집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정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홍보위원회	보험위원회	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김경태 (한양대)	이규원 (고려대)	조영래 (경북대)	남주현 (울산대)	박상윤 (국립암센터)	배덕수 (성균관대)	서호석 (고려대)	배석년 (가톨릭대)	배동한 (순천향대)	윤만수 (부산대)	최호선 (전남대)
김원규 (고신대)	김병기 (성균관대)	김태진 (성균관대)	김문홍 (원지력의학원)	고재환 (인제대)	김경진 (간양대)	안웅식 (가톨릭대)	고민환 (영남대)	김기태 (인제대)	김기형 (부산대)	김석모 (전남대)
남주현 (울산대)	김승철 (이화대)	박노현 (서울대)	김석모 (전남대)	김용범 (서울대)	김진우 (가톨릭대)	남계현 (순천향대)	김성훈 (연세대)	김성한 (고신대)	김원규 (고신대)	김수녕 (건국대)
박상윤 (국립암센터)	김영탁 (울산대)	박진원 (단국대)	김재원 (서울대)	김현호 (동아대)	김학순 (충북대)	송용상 (서울대)	손우석 (울산대)	노홍태 (충남대)	김홍배 (한림대)	김용만 (울산대)
배덕수 (성균관대)	김영태 (연세대)	이동현 (강원대)	김중혁 (울산대)	남상륜 (충남대)	박찬용 (가천대)	이선경 (경희대)	류기성 (가톨릭대)	박일우 (경북대)	이두진 (영남대)	김재훈 (연세대)
서호석 (고려대)	김홍곤 (원광대)	차순도 (계명대)	박영한 (한림대)	심재철 (동국대)	오병찬 (전북대)	이재관 (고려대)	유상영 (원지력의학원)	이영우 (한림대)	이의돈 (원지력의학원)	유희석 (아주대)
송용상 (서울대)	박중섭 (가톨릭대)	황인택 (을지대)	송은섭 (인하대)	이기현 (성균관대)	허주엽 (경희대)	장기홍 (아주대)	한세준 (조선대)	조삼현 (한양대)	이찬 (포천중문대)	이정필 (아주대)
안웅식 (가톨릭대)	박충학 (단국대)	안태규 (조선대)	안태규 (조선대)	이종학 (경상대)			이준모 (가톨릭대)	최동수 (연세대)	전혜원 (서울대)	이철민 (인제대)
차순도 (계명대)	유희석 (아주대)	이종민 (경희대)	이종민 (경희대)	최석철 (원지력의학원)			최승도 (순천향대)	최승도 (순천향대)		허수영 (가톨릭대)
최호선 (전남대)	이낙우 (고려대)	조치흠 (계명대)	조치흠 (계명대)							
한세준 (조선대)	이윤순 (경북대)	허수영 (가톨릭대)	허수영 (가톨릭대)							
허주엽 (경희대)										

세부운영위원회
김재훈 (연세대)
김병기 (성균관대)
김석모 (전남대)
김승철 (이화대)
김영탁 (울산대)
김영태 (연세대)
김용만 (울산대)
김재원 (서울대)
박노현 (서울대)
유상영 (원지력의학원)
유희석 (아주대)
이기현 (성균관대)
이종민 (경희대)
이재관 (고려대)
조치흠 (계명대)
허수영 (가톨릭대)
차문석 (동아대)

HPV 소위원회 (HPV Committee)
위원장: 박중섭 (가톨릭대)
간사: 김재훈 (연세대)
위원: 강석범 (국립암센터)
김승철 (이화대)
김영탁 (울산대)
김영태 (연세대)
김희숙 (성균관대)
송용상 (서울대)
신해림 (국립암센터)
이재관 (고려대)
정환욱 (미래와 희망)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Guideline Committee)
위원장: 김경태 (한양대)
부위원장: 박상윤 (국립암센터)
전체간사: 김병기 (성균관대)
<b>자궁경부암 진료권고안 개발팀</b>
자문위원: 최호선, 배덕수
위원: 김영탁(팀장), 김천주(간사), 김승철, 남계현, 김영태, 이종민, 강석범, 김석모
<b>자궁내막암 진료권고안 개발팀</b>
자문위원: 서호석, 조영래
위원: 유희석(팀장), 장기홍(간사), 류기성, 김재원, 김재훈, 차문석, 이기현, 김중혁

소식지소위원회	정보소위원회
유희석 (아주대)	김수녕 (건국대)
이정필 (아주대)	김석모 (전남대)
이철민 (인제대)	김용만 (울산대)
허수영 (가톨릭대)	김재훈 (연세대)

이 사				
강순범 (서울대)	남상륜 (충남대)	박충학 (단국대)	윤만수 (부산대)	전중수 (성균관대)
강재성 (고려대)	남주현 (울산대)	배덕수 (성균관대)	이경희 (원지력의학원)	조삼현 (한양대)
구병삼 (서울이병의원)	노홍태 (충남대)	배도환 (중앙대)	이규원 (고려대)	조영래 (경북대)
김경태 (한양대)	목정은 (울산대)	배동한 (순천향대)	이선경 (경희대)	차순도 (계명대)
김수녕 (건국대)	문 형 (한양대)	배석년 (가톨릭대)	이승호 (영남대)	최호선 (전남대)
김승조 (포천중문대)	박상윤 (국립암센터)	서영욱 (부산일신병원)	이영수 (인제대)	한구택 (가톨릭대)
김승철 (이화대)	박은동 (고신대)	서호석 (고려대)	이의돈 (원지력의학원)	한세준 (조선대)
김재욱 (연세대)	박인서 (성균관대)	송용상 (서울대)	이제호 (성균관대)	허 민 (중앙대)
김중덕 (전북대)	박일수 (경북대)	심재욱 (성균관대)	이진용 (을지대)	허주엽 (경희대)
김학순 (충북대)	박중섭 (가톨릭대)	안웅식 (가톨릭대)	이태성 (대구가톨릭대)	황윤영 (한양대)
김현찬 (인제대)	박종택 (성균관대)	안재영 (포천중문대)	이현영 (청화병원)	
김현호 (동아대)	박찬규 (연세대)	오병찬 (전북대)	이효표 (서울대)	
남궁성은 (가톨릭대)	박찬용 (가천대)	유희석 (아주대)	장윤석 (마리아병원)	